

龍仁 坪倉里 舊石器 遺蹟
試掘調查報告

京畿道博物館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1998. 8.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유적의 입지와 지형 | 3 |
| III. 조사일정 | 5 |
| IV. 층위와 유물분포상 | 7 |
| V. 중요유물 | 19 |
| VI. 종합고찰 | 37 |
| ABSTRACT | 41 |
| 사진 | 43 |

I. 서론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은 유적 일대 지역에 예정된 전원주택단지 건설에 앞서 경기도박물관과 한신대박물관 조사단이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즉, 건설허가권자인 용인군은 허가에 앞서 개발주체인 삼성에버랜드 측에 당해 지역에서의 문화재 부존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경기도박물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경기도박물관은 다시 한신대박물관의 조력을 받아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사단은 이 일대에 광범위하게 고토양층이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다각면원구 1점을 비롯해 타격흔이 있는 석영 및 규암 덩어리를 여러 점 채취하였다. 이러한 발견으로 이곳에 구석기 유적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개발에 앞서 유적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어, 문화재관리국의 시굴허가를 받은 경기도박물관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와 더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내용의 설명에 언급하겠지만, 시굴에서 평창리 유적은 뜻밖에도 매우 중요한 유적임이 드러나, 확대 조사를 위한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발굴이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조사단은 여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유적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준 삼성에버랜드(주) 측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삼성에버랜드(주)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유적 조사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아니었다면, 본 조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본 시굴조사의 구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이인숙(경기도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사위원: 이남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최병현(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지도위원: 한병삼(문화재 위원)
 책임조사원: 이선복(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조사원: 김성태(경기도 박물관 고고미술부장)
 유용욱(캐나다 McGill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윤용희(경기도 박물관 고고미술부)
 조사보조원: 김태식(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전용호(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이 밖에도 신영문(국민대학교 사학과), 강동석, 고재용, 윤현희, 이경선, 조성호, 조은혜, 최창호(이상 경기도 박물관 고고미술부), 이재섭(단국대 사학과 졸업), 박해운, 홍세진(이상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정태은, 이희인(이상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 이승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등이 시굴조사에 참가하였다. 보고서는 이선복의 총괄하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유용욱, 김성곤(미국 Rutgers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김태식, 이기성(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전용호, 정태은, 홍세진 등이 담당하였다. 시굴조사 기간 동안 중장비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최창호가 총괄하였으며, 통신시설은 고재용, 최창호가 담당하고, 각종 장비와 조사원들의 편의 제공은 삼성 에버랜드의 이신기 과장과 서동주 대리가 맡아주었다. 이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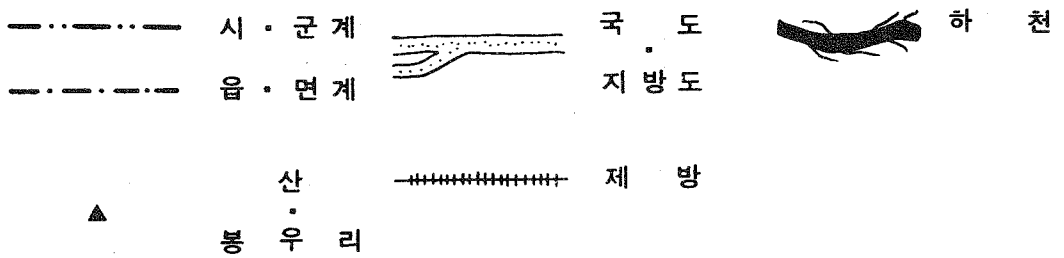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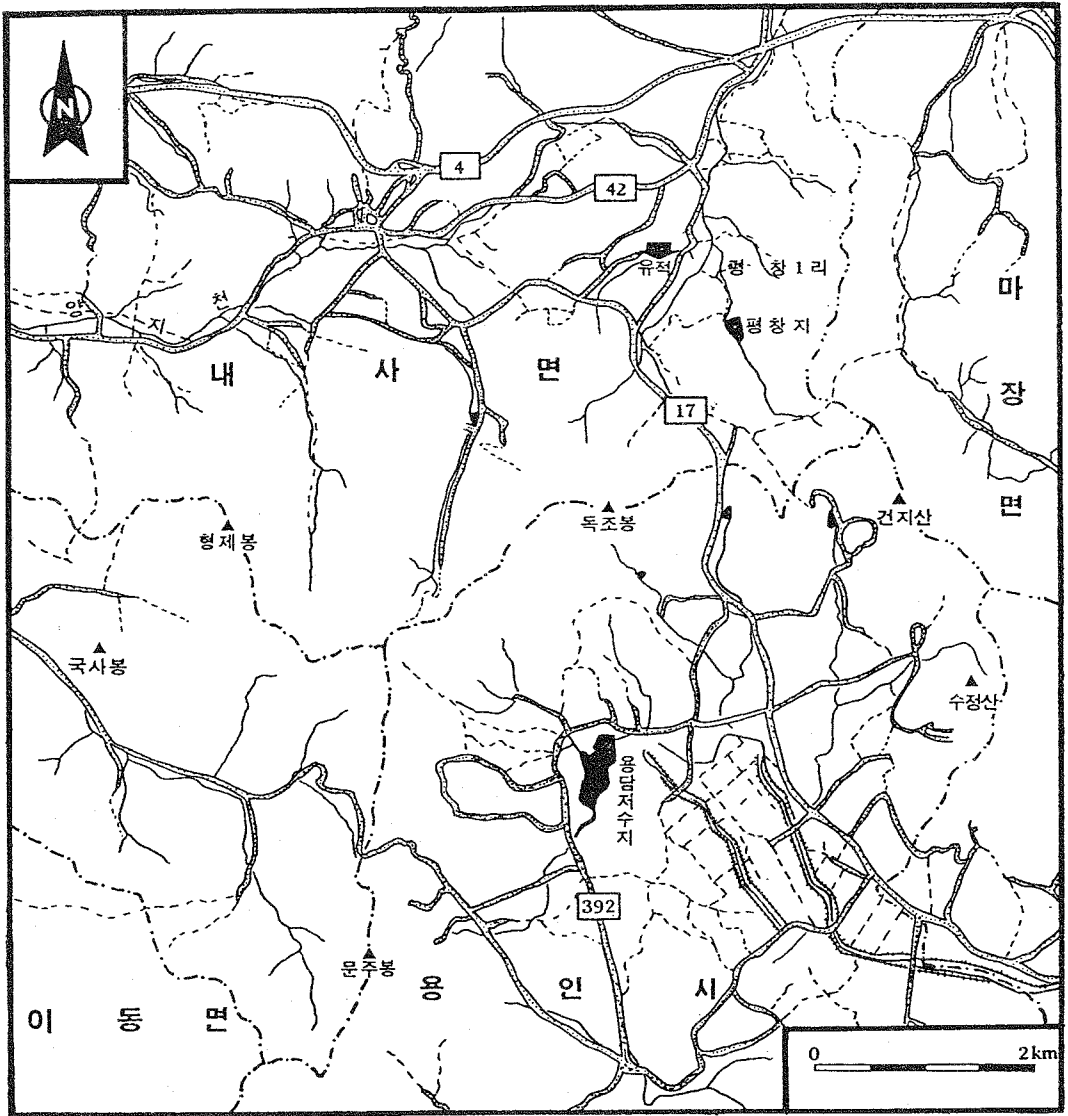
II. 유적의 입지와 지형

평창리 유적은 용인시 북동부의 양지면에 속하며, 지번상으로는 양지면 평창리 산 106-14번지이다. 유적은 영동고속도로 양지인터체인지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져 17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다. 시굴조사가 필요했던 유적의 범위는 500평 정도이다.

유적 주변에는 해발 300m 내외의 작은 봉우리가 곳곳에 발달해 있다. 영동고속도로의 가설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원지형은 상당히 파괴되었지만, 유적은 배후산지에서 흘러내린 경사도 3-5도 정도의 산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지형조건을 고려할 때, 유적은 사면을 따라 발달한 소하천의 급격한 범람의 반복에 의해 쌓인 토양층 내부에 형성되었다고 보인다(「도면 1」).

유적 일대는 최근까지 곶과 사슴을 사육하던 농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삼성에버랜드(주) 측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하였다. 조사지역은 농장 남서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특히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정원수가 식목되었다고 한다. 지표조사 실시 이전까지 조사지역 일대는 정원수 이전으로 생긴 구덩이로 지표면이 상당히 교란된 상태였으며, 그러한 곳에서 유물을 채집할 수 있었다.

조사는 유적 일대에 시굴구덩이 8개를 설치한 다음, 각 구덩이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파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동물사육장이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이용해 퇴적층의 존부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다. 이러한 조사와 더불어 유적지 주변의 미개발지에 대한 지표조사



「도면 1」 유적의 위치와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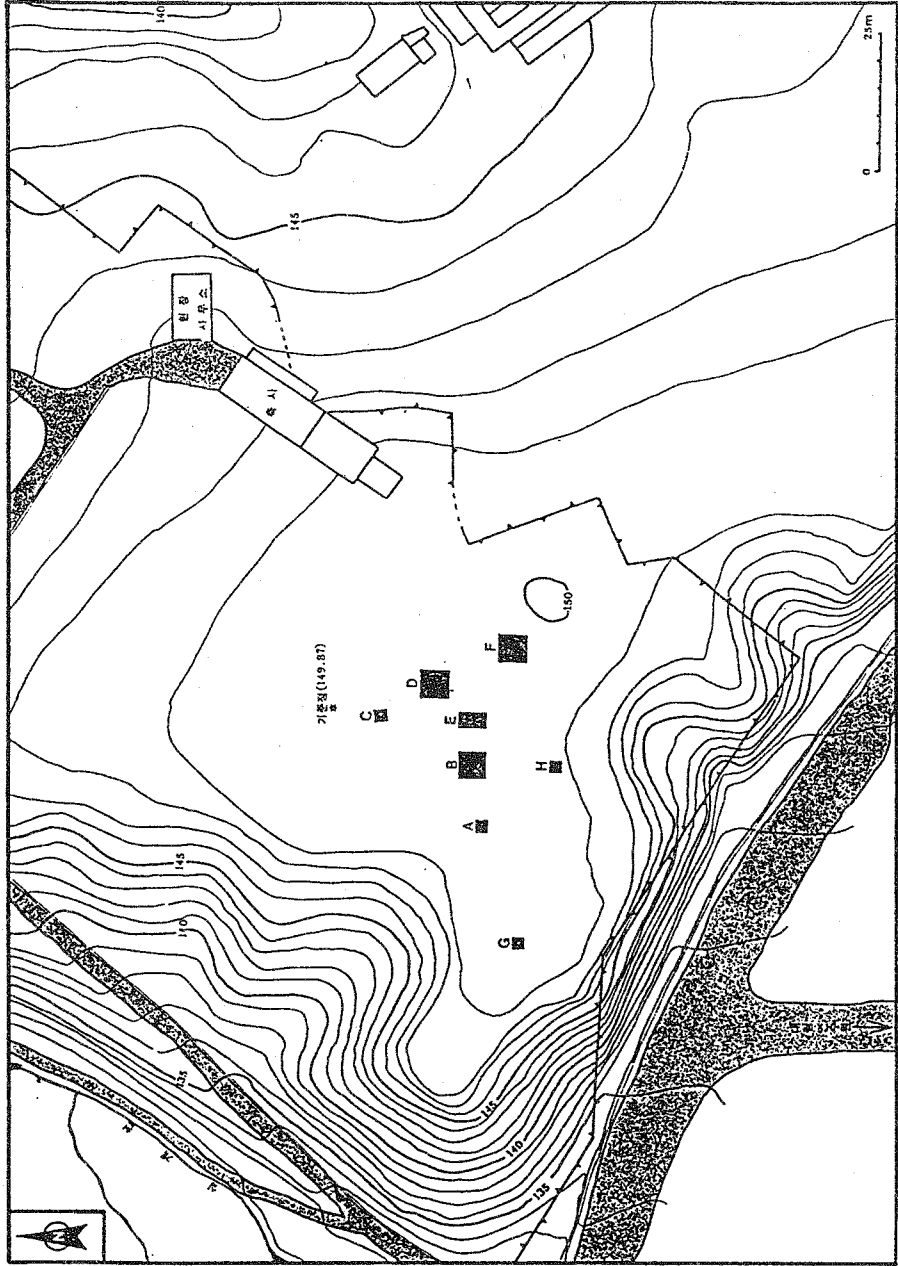
를 통해 조사단은 유적의 성격을 파악해 나갔다(「도면 2」).

III. 조사일정

유적에 대한 시굴 조사는 1998년 6월 18일 조사단의 주요인원이 현장을 본격정찰함과 더불어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유물의 밀도와 분포범위를 확인해, 과연 정식 발굴이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시해야 할 지를 파악함에 있었다. 경기도박물관의 행정지원하에 서울대 조사단의 지휘로 이루어진 본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단은 지표조사에서 드러난 유물의 수준과 빈도를 고려할 때 15일 정도면 더 이상의 추가발굴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유적 전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사성과의 서술에서 드러나듯, 이것은 큰 오판이었다.

조사단은 우선 유적지역의 적당한 지점에 기준점을 설정한 다음, 문화층 부존범위로 생각되는 지역의 규모를 감안해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30m, 서쪽으로 15m, 북쪽으로 5m 거리에 이르기까지 5m 간격의 구획을 하였다. 이후, 추가 구획의 필요로 조사단은 구획범위를 확장하였는데, 그 결과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30m, 서쪽으로 20m, 남쪽으로 10m, 북쪽으로 25m 지점에 이르는 지역이 발굴예정지역으로 구획되었다.

본격적인 굴토작업은 발굴허가와 관계된 행정절차가 완료된 6월 29일부터 시작된 셈이다. 여러 현장조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선 시굴은 가로세로 각 2m의 구덩이를 파 보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어, 작업이 진행되며 이 구덩이를 사방 5m로 확장하였다. 시굴갱의 명칭



「도면 2」 유적지 내의 지형과 시굴 pit 배치도

은 작업착수순서에 따라 사방 5m 구획을 단위로 해 알파벳 순서를 부여키로 했으며, 일부만을 발굴할 경우에는 알파벳 문자 다음에 '-1'의 첨자를 붙이기로 했다. 이러한 명명방식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구덩이의 명칭과 분포는 「도면 2」와 같다. 조사는 이들 시굴갱 중 특히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굴된 B 및 D 구덩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시굴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조사단은 전술한 중장비를 이용해 농장 각지에 대해 가로 세로 각 약 2m와 5m 정도의 구덩이 13개를 파 보았다.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이라 정밀한 조사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화층은 거의 깎여나가고 설령 퇴적층이 살아 남은 경우에도 발굴을 필요로 할 만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차의 조사는 B, D구덩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발굴갱 내에서의 유물수습과 토층 및 지형 측량이 완료된 다음, 1998년 7월 18일 지도위원회를 끝으로 본 시굴조사는 일단 종료되었으며, 조사단은 7월 20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7월 31일에는 관계전문가에 의한 퇴적층에 대한 토양분석표본채취작업이 있었다. 1998년 8월 현재 시굴조사에서 수습한 모든 유물과 관련자료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실험실에 보관중이다.

IV. 층위와 유물 분포상

(1) 층위의 고찰

유적의 층위는 조사지역 부근에 공사로 노출된 퇴적단면과 더불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B 및 D시굴갱에 노출된 층서 관찰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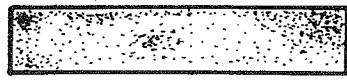


표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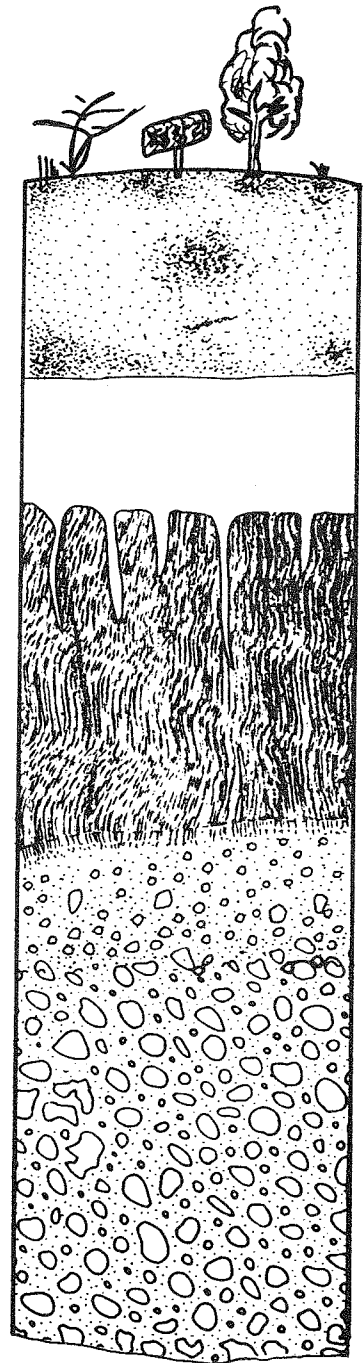
황갈색 실트층



적갈색 실트층



암반 풍화 토



「도면 3」 용인군 평창리 유적 층위분포 모식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찰 결과, 유적의 층위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서, 「도면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4개의 단위로 구분할 수 있겠다. 유물포함층은 점토성 실트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었는데, 그 일부는 퇴적 이후의 침식으로 교란되었다. 각 퇴적층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암반 풍화토: 현재 토양화가 진척되고 있는 암갈색의 화강암 풍화토로서 아래의 화강암반과 연결된다. 노출단면에 따르자면, 이 층에는 사면운동으로 퇴적된 화강암과 편암체의 자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층에서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층은 그 위의 적갈색실트층과 접이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두 층의 경계면에서 유물이 상당수 수습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유적형성 모층(母層)이라 부를 만하다. 화강암체의 석립들이 많이 섞인 관계로 점성은 낮은 편이다.

2. 적갈색 실트층: 유물포함층에 해당하는 층으로서 어두운 적색계통의 실트성 점토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곳곳에서 망간과도 같은 중금속 침전물의 집적현상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하부에는 그러한 침전물이 마치 하나의 띠와도 같은 양상으로 분포한다. 퇴적물의 점성은 대체로 양호하며, 중간중간에 벌레 혹은 나무뿌리에 의해 형성된 공극(즉, pseudomorph)이 보이기도 한다. 이 층은 장차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에 따라서는 상하 두 개 혹은 세 개의 단위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윗 부분은 곳곳에서 많이 깎여 나간 상태이며,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 층 위로 아래 기술할 황갈색실트층이 아닌 표토층이 이어지고 있다. 이 층에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구석기 유적에서 거의 예외없이 발견된 땅갈라짐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 땅갈라짐 현상은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dry crack이라 생각된다. 개개 crack의 규모는 대체로 작은 편으로서, 단위 현상당 대략 길이 30-40cm, 폭 1-2.0cm 정도이다. 하나의 crack 내부에 다시 또 하나의 crack이 관찰되기도 한다.

3. 황갈색 실트층: 하층인 적갈색 실트층의 최상층부와 더불어 이 층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그 결과 표토층과는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층은 시굴갱 내에서는 D 시굴갱의 남서쪽 구석부분에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층은 적갈색 실트층과 색조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점성은 그 아래층보다 떨어지는 편이며 중금속 침전물도 뚜렷하지 않다. 입자구성이나 층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 층과 적갈색점토층은 동일한 퇴적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단위 사이의 뚜렷한 색조 차이가 말해 주듯, 이 층은 하부의 적갈색 점토층과는 상이한 기후조건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유역에서의 조사경험을 빌려, 이곳의 층위를 그대로 임진강 유역의 퇴적층서에 투영한다면, 이 층에서는 소위 AT가 발견될 확률이 꽤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경우 이 층 아래 적갈색실트층 및 그 층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은 적어도 기원전 2만년대 전반부 이전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4. 표토층: 표토층은 실트-점토성 물질로 구성되며 유기물이 다량 포함된 흑갈색 층으로서, 그 아래의 층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인위적인 교란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유물이 일부 발견되지만 본 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각 층서단위의 특징들을 통하여 볼 때 평창리 유적의 층위는 급진적인 퇴적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출토유물에서 묻어나오는 토양층의 점착상태로 보아서 퇴적 이후의 변형작용을 그다지 심하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주변 지형이 비교적 폐쇄적인 지형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영력이 본 퇴적층의 형성에 개입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심하게 곡류하거나 유량이 큰 하천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천운동의 에너지가 본 퇴적층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만큼 높지 않았을 것이란 짐작도 가능하다.

앞으로 본 발굴에서 실시될 토양층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본 유적의 형성과정에 보다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유적의 퇴적층 특히 적갈색 실트층과 황갈색 실트층은 주변의 높은 지형에서 기인한 경사성 퇴적물이 강우에 의한 slope wash나 혹은 바람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퇴적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암반인 화강암이 유적지 내에서 풍화되는 동안 주변의 경사성 퇴적물들이 상기한 운반과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유적지 내에 유입하면서 본 유적의 퇴적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의 기후 변동 양상이 퇴적층의 색깔이나 땅갈라짐 현상과도 같은 지형상의 특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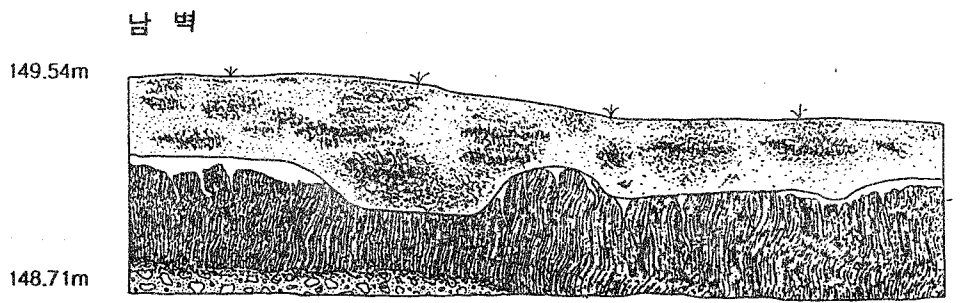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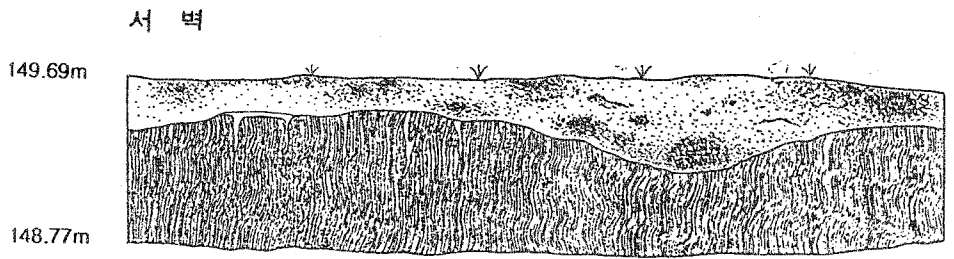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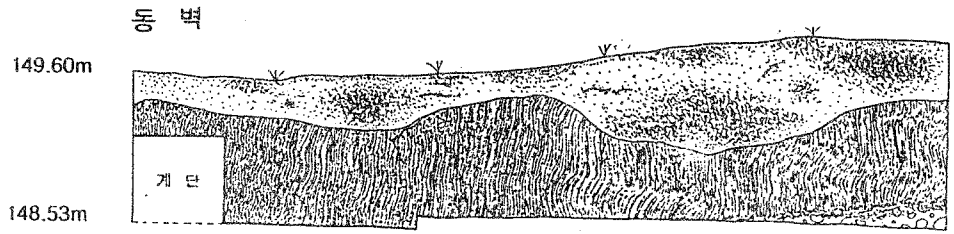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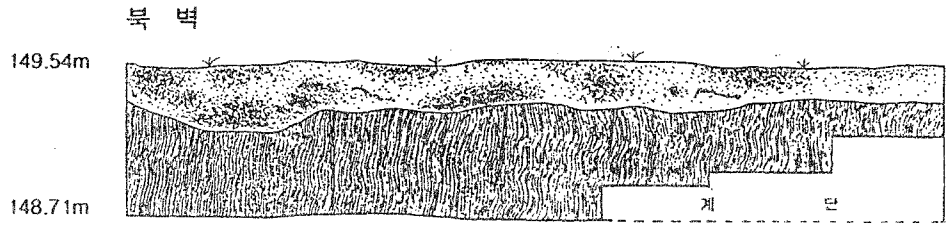
한편 시굴조사의 일환으로서, 퇴적층의 연대과약을 위한 화산재 분석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시료채취는 일본의 화산재 전문가인 冨田 勉씨가 담당하였는데, 시료채취방법은 상기한 4개의 층위에서 임의로 중요부분의 표지를 한다음 각 표지로 부터 5cm단위로 정량의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시료의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평창리 유적에서 기존의 한반도 여타의 구석기 유적에서와 마찬가지로 AT나 ASO화산재가 검출된다면 본 유적의 퇴적시기 연대 및 퇴적당시의 환경을 시간축 상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평창리 유적 석기군의 전반적인 성격을 통해서 볼 때 동아시아 구석기 유적의 편년적인 위치상, 본 유적에서도 후기 홍적세 말엽의 화산재가 검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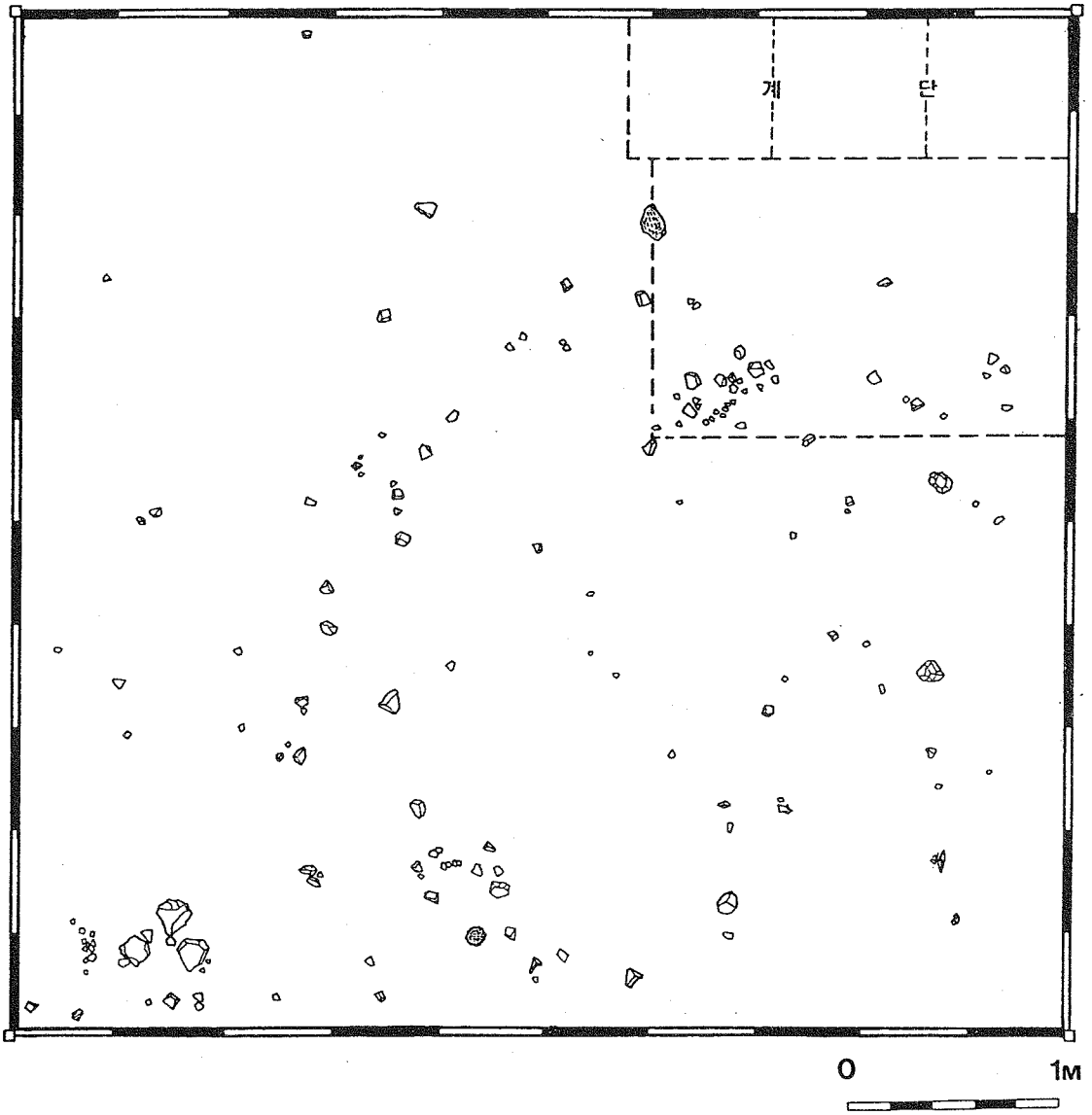
(2) 유물의 구성과 공간적 분포상

지금까지 제시한 4가지 단위의 퇴적상이 시굴조사에서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전술한 바 있다. 이는 퇴적층 상부의 토양들이 대부분 자연적, 인위적으로 유실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표토층이나 황갈색 실트층의 경우는 그 교란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시굴 pit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갈색 실트층의 경우는 아직 까지 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유물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는 퇴적 이후에도 그다지 심각한 변형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유물을 산출한 B 구덩이의 경우, 5 x 5m 크기의 구덩이



「도면 4」 B pit 층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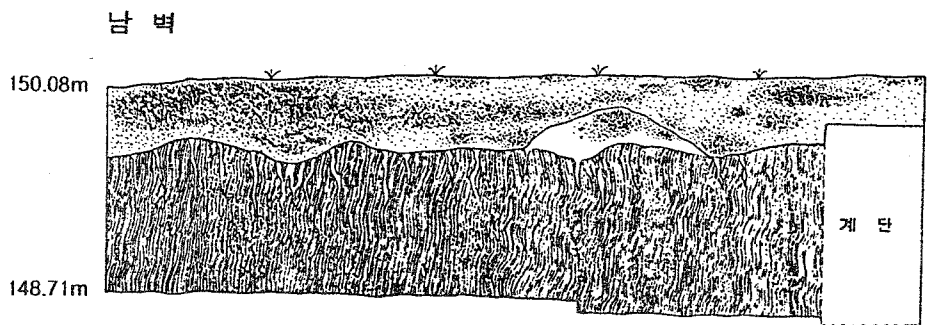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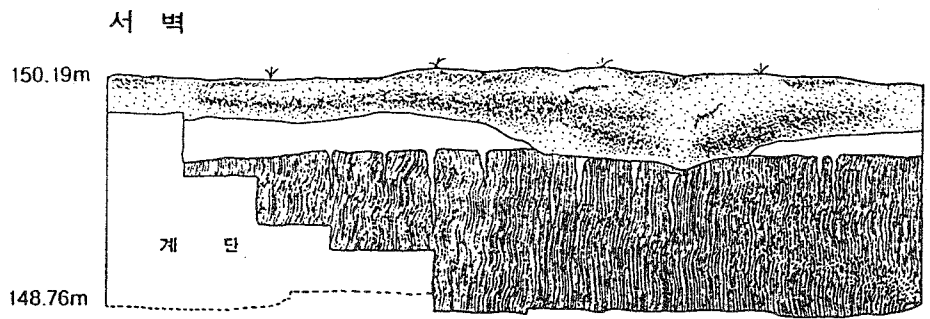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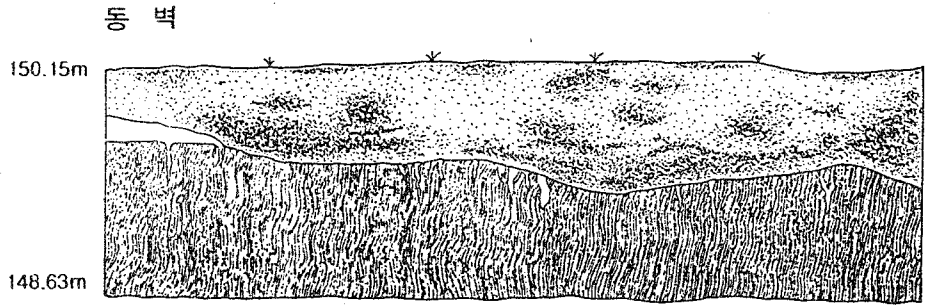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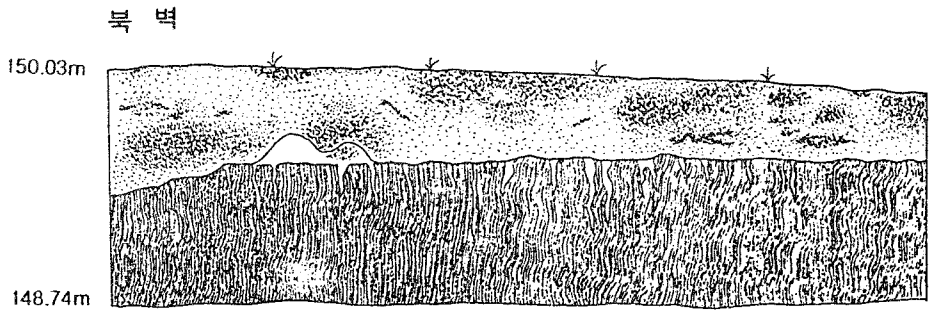
「도면 5」 B pit 유물 분포 상황

에서 도합 150여점을 초과하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표토층에서 발견된 유물을 제외한 이 수치는 아마도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 중에서 단일 유적으로는 가장 높은 유물 집중도를 보여주는 것중에 하나일 것이다. 유물이 발견되는 고도는 적갈색 점토층의 바닥면 부분, 즉 해발고도 약 148.70m상에서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도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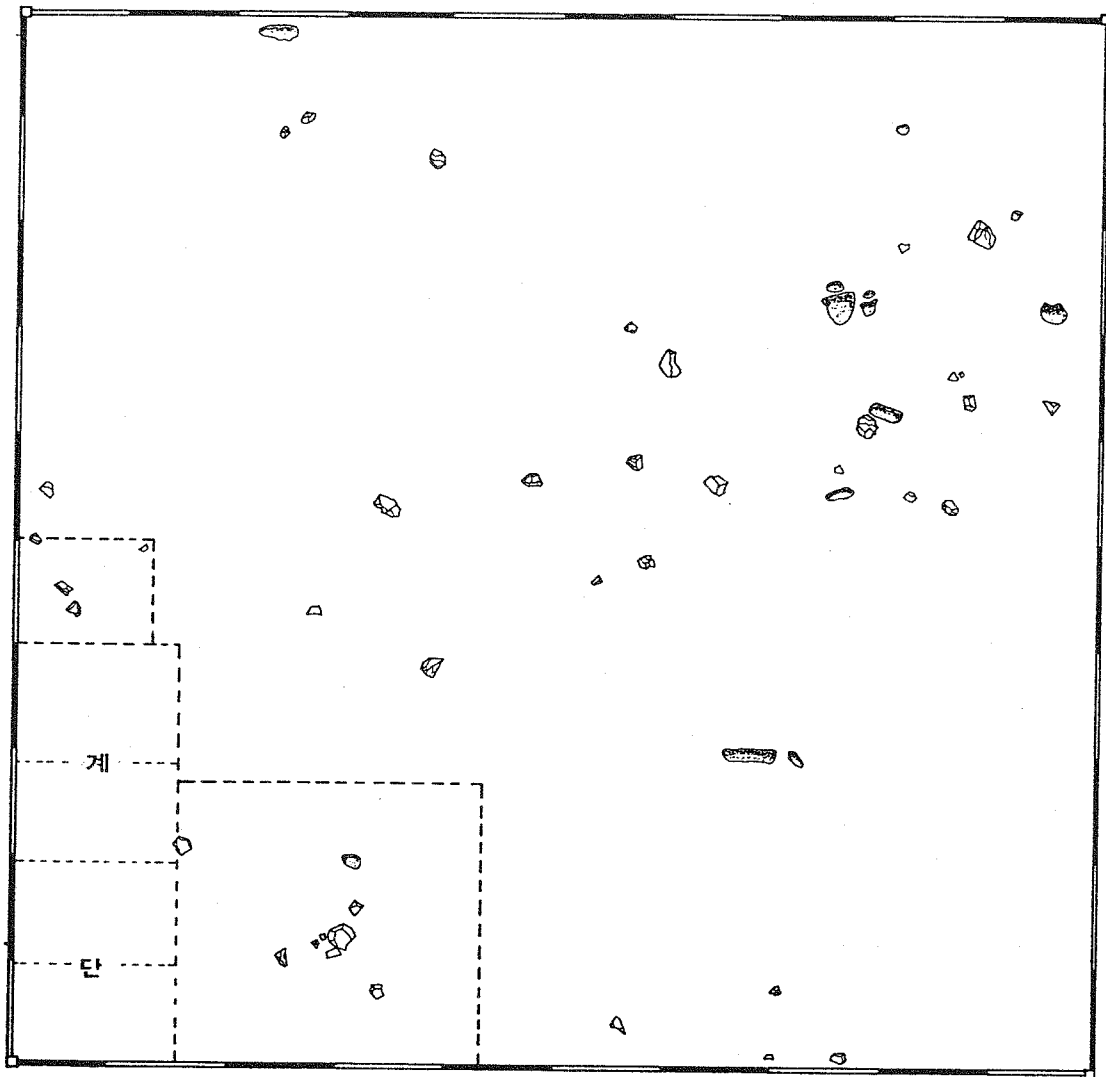
B 구덩이 내의 이러한 양상은 평창리 유적이 점진적으로 퇴적된 것을 고려할 때 유물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작, 파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서벽에서 점합석기가 상호 인접해서 나타난다는 점, 제작 도중 파기된 유경침두기가 제작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동일 제품과 거의 같은 레벨에서 발견된다는 점, 망치돌의 흔적이 보이는 화강암제 석기가 함께 보이는 점은 B 구덩이 내에서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고인류의 각종 행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도면 5」).

B 구덩이 내의 유물집중도는 상당히 높지만 그 균일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볼 때 남쪽벽의 구석부분과 북동쪽 중반부에서 다량의 석기가 발견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석기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다량의 버리는 석재를 포함하여 비교적 정선된 석기들인 유경침두기나 잔손질된 굽개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평창리 유적의 석기제작기술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말해준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지만 만일 본 B 시굴갱이 실제로 석기를 제작하고 폐기한 지역일 경우 이렇게 석기가 밀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은 아마도 석기사용의 주체인 고인류의 개개인의 행위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양상은



「도면 6」 D pit 층위도



「도면 7」 D pit 유물 분포 상황

인접하는 D 시굴갱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도면 7」).

D 시굴갱의 서벽부근에서는 소형석기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물이 발견되는 레벨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첫번째 레벨은 B와 유사한 148.70m 정도로서 다량의 석기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두번째 레벨은 이보다 약 0.8- 1m정도 높은 149.60m 부근이다. 높은 레벨에서 출토된 석기들은 대체로 D 시굴갱의 동북쪽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사진 26」) 대형석기나 석핵들이 중심을 차지하지만 잔손질한 소형석기도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레벨차이가 석기제작기술의 시간적인 차이를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D 시굴갱의 동남쪽구석 부근에서는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났는데, 석영제의 천석을 양면가공한 찌개와 정교한 잔손질을 한 돌날이 같은 레벨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서구 구석기 공작의 편년상 이러한 두 가지 기술적 전통은 시기적으로 선후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본 D 시굴갱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석기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공반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두 석기의 사이에 또 다른 소형석기에 해당하는 석영제 소형 송곳(awl)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송곳은 의도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타격면이나 타격흔의 발달이 미약하지만 석기제작중에 부수적으로 파생한 석재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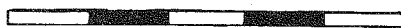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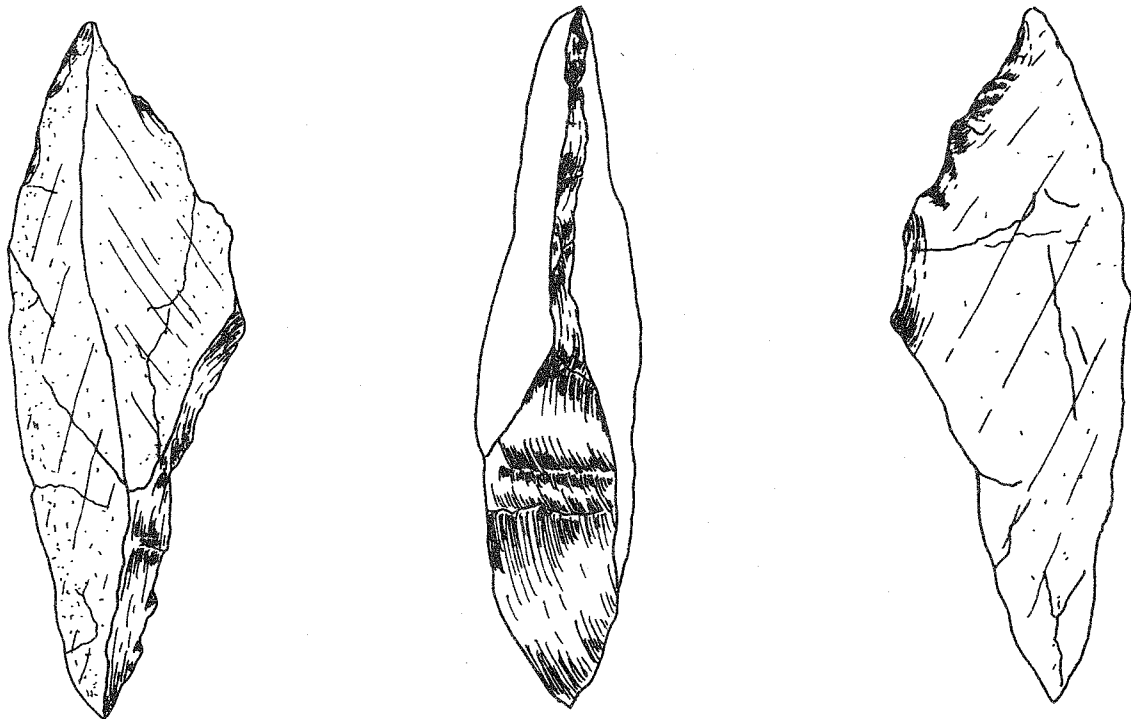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석기들이 좁은 지역 내에서 상호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점인데, 만약 고인류가 이러한 석기들을 제작, 사용하였다면 상기한 석기들을 동시에 휴대, 보관하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양상의 유물군이

발견된 예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러한 ‘개인 휴대품목’(Individual kit)이라는 개념의 적용이 얼마나 가능할 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석기의 미세흔 분석과도 같은 방법론을 통하여 상기한 석기군의 기능적인 검토를 시도해 보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평창리 유적에서 대부분의 유물분포는 B와 D 시굴갱, 두 곳에 한정되고 있지만 차후의 본격 조사에서는 이러한 유물들의 공간적인 분포상이 보다 넓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본 시굴조사에서는 이렇게 인접하는 두 시굴갱을 연결, 확장하는 의미에서 B와 D 사이에 E 시굴갱을 넣어보았지만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유물포함층까지 진입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V. 중요 유물

평창리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예외없이 구석기 시대의 석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재료적 측면에서 볼 때 석영제 석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지표수습된 유물로서 호운펠스나 반암제의 석기가 발견된 예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석재들로 제작된 석기들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석영제 석기와 비교할 때 기술전통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유물포함층 내에서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맥락을 달리하는 제작기술로 간주할 수 있다. B와 D 시굴갱 및 지표수습된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유물의 크기단위는 모두 cm인 점을 밝혀둔다.



「도면 8」 B pit 출토 석영제 有肩尖頭器(나이프형 석기)

(1) B 시굴갱 출토 유물

① 석영제 유견침두기. (「도면 8」, 「사진 12, 3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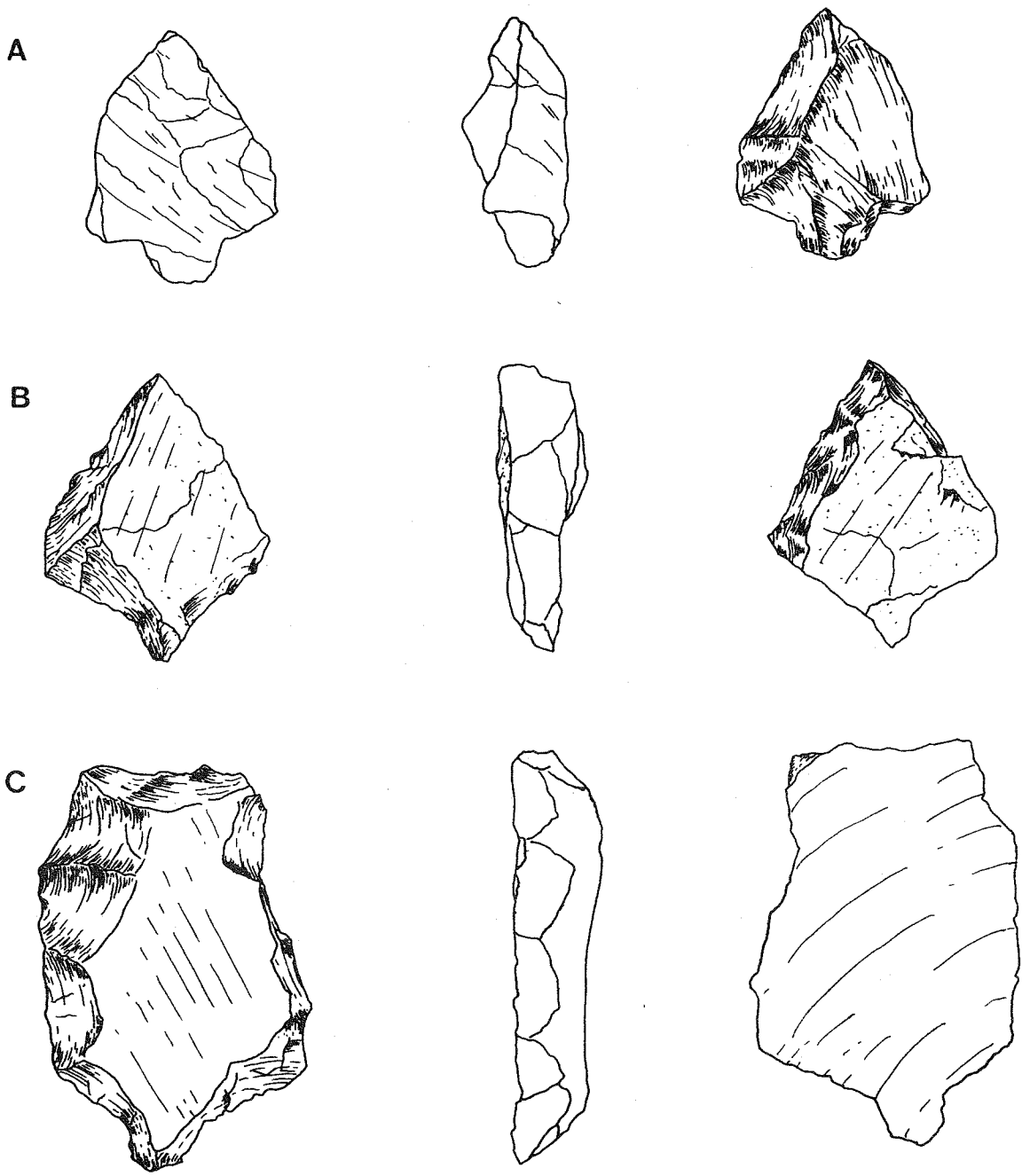
평창리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는 석기이다. 외견상 일본 구석기 시대의 고휘 나이프형 석기와 흡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계통의 석기로 간주할 수 있겠다. 다만 제작상에서 볼 때 박편이 아닌 천석으로 제작되었으며 좌측 상단부에는 정교한 잔손질 기법이 보인다. 좌측하단부는 인위적으로 타격을 가하여 턱진 어깨를 만들어 내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턱진 어깨를 만들어 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잡기 쉽게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도구에 장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길이 9.1, 폭 3.1, 두께 2.1

② 석영제 유경침두기. (「도면 9-A」, 「사진 18, 41의 좌측」)

거의 완벽한 화살촉 형태를 하고 있는 유경침두기로서 스펀부분을 가공하기 위하여 양측 하부를 정교하게 타격해 낸 흔적이 보인다. 미세한 구조의 석영으로 제작되었으며 등면은 거의 가공이 보이지 않지만 배면에는 가공 이전의 박편에 남아있던 각종 흔적들이 거칠게 남아있다. 길이 3.4, 폭 2.75, 두께 1.6

③ 석영제 유경침두기. (「도면 9-B」, 「사진 13, 41의 우측」)

전자의 침두기와는 달리 편평한 단면구조를 보여주며 스펀부분의 발달이 미약하다. 전체적인 인상은 마름모에 가까우며 측면을 교차로 타격하여 양쪽 모두 날을 세우고 있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스펀부분을



「도면 9」 B pit 출토 석영제 有莖尖頭器(화살촉)
 (A, B. 유경첨두기 C. 제작도중에 폐기된 반제품)

만들기 위하여 기저부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길이 4.85, 폭 3.45, 두께 1.4

④ 유경침두기 반제품. (「도면 9-C」, 「사진 11, 39, 40」)

유경침두기를 제작도중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도면 9-C」의 예처럼 편평한 박편의 주연부를 집중적으로 가공하여 화살촉 형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남아있으며 스페 부분은 이미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석영이라는 조잡한 석재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길이 4.85, 폭 3.45, 두께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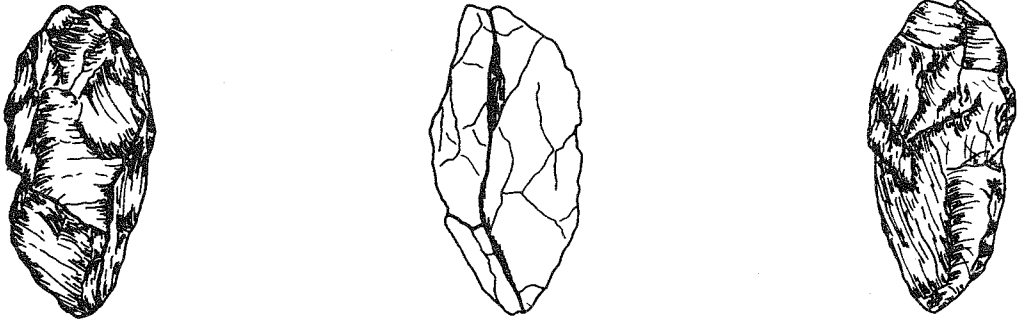
⑤ 접합석기. (「도면 10-A,B」, 「사진 14, 43, 44」)

B 시굴갱 남서부 구석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당시에도 접합된 상태이었으며 세 부분의 조합이 거의 완벽하게 맞물리고 있다. 일차적 격지(primary spall)를 석핵에서 뜯어낸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에 지압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영력을 통하여 세 번째 파편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차적 격지를 타격하는 방법은 단순한 직접타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며 아마도 모루 때려 내거나 간접 타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접합상태의 길이 6, 폭 2.1, 두께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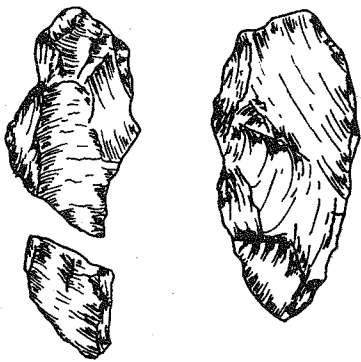
⑥ 화강암제 망치돌(「도면 10-C」, 「사진 15, 42」)

표면이 심하게 부식을 당한 상태이지만 타격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거의 구형에 가깝다. 석영제 석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대형박편을 때려내는데 사용한 망치돌로 간주된다. 성인 남자의 손에 거의 딱 들어맞는 크기이며, 타격시의 마찰로 인한 화강암 성분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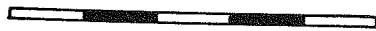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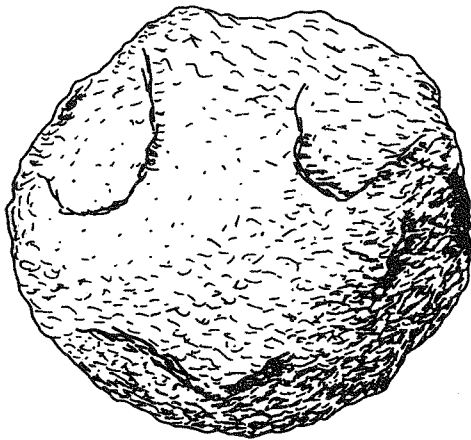
A



B



C



「도면 10」 B pit 출토 석기 각종
 (A. 접합 석기 B. 접합석기 이탈 상태 C. 화강암제 망치돌)

모퉁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지름 약 6- 6.3

⑦ 석영제 짝개(「도면 11」)

석영제의 모암을 가지고 커다란 박편을 제거하면서 형성된 짝개 혹은 석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날부분은 그다지 날카롭지 않고 타격 흔적이나 타격면이 이루는 각도도 둔중하기 때문에 형태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고전적인 짝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밑부분에 남아있는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삼아서 박편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석핵으로 사용되던 도중, 더 이상 타격면의 형성이 불가능하게 되자 부수적인 가공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짝개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길이 7.45, 폭 10.3, 두께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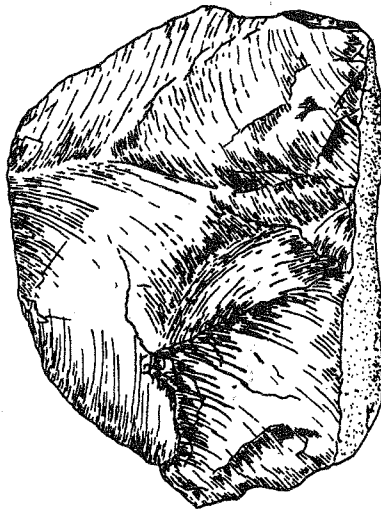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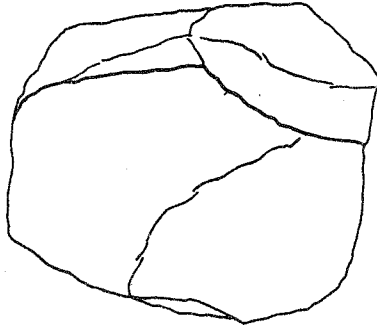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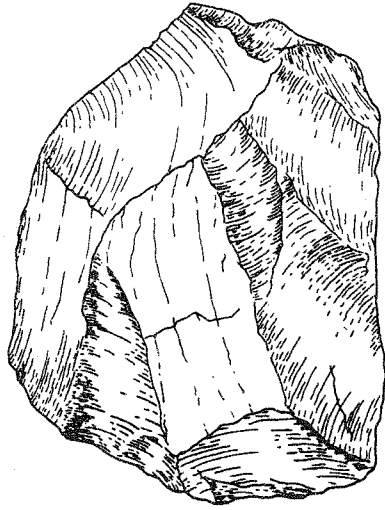
(2) D 시굴갱 출토 유물

① 석영제 굵개(「도면 12-A, 「사진 24, 25」)

석영제 박편의 양측면을 가공하여 제작되었다. 타격대면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우측에 남아있는 타격흔으로 보아 대형석핵에서 연속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형성된 박편임을 알 수 있다. 양측면에는 잔손질한 기법이 보이고 형태면으로 보아 박편첨두기로 구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더진 날을 계속적으로 잔손질을 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길이 5.8, 폭 4.25, 두께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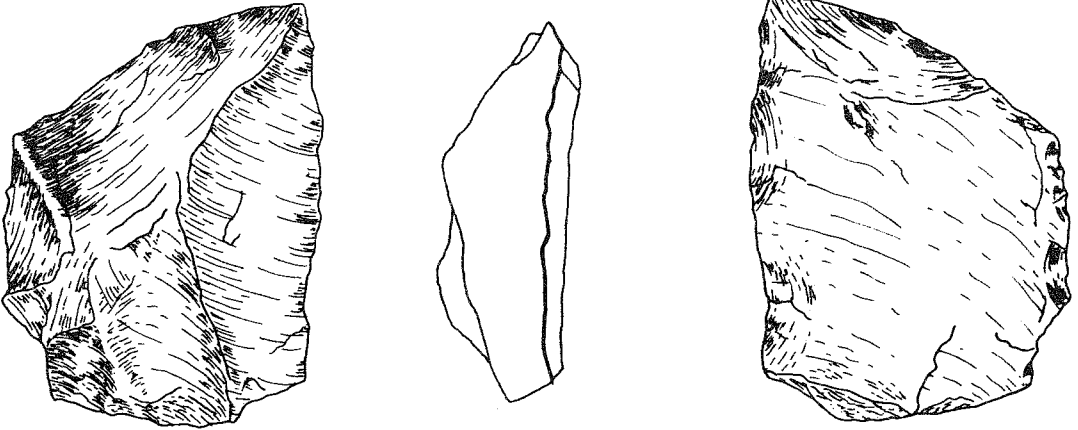
② 석영제 돌날(「도면 12-B, 「사진 29, 30」)

「도면 13」의 짝개와 공반되어 발견되었다. 상당히 정선된 가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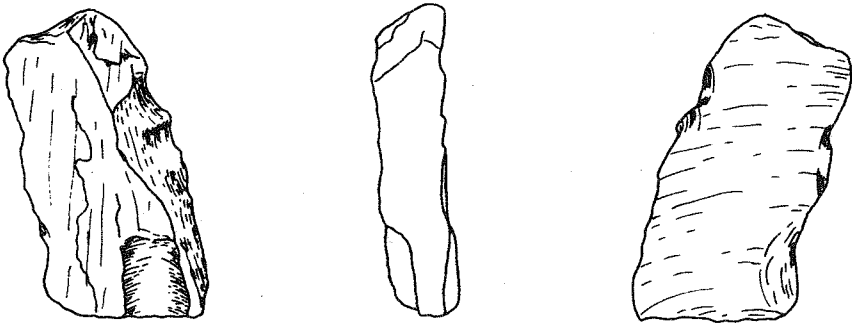


「도면 11」 B pit 출토 석영제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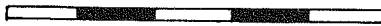
A



B



C



「도면 12」 D pit 출토 각종 소형 석기들
(A. 굽개 B. 돌날 C. 톱니날 새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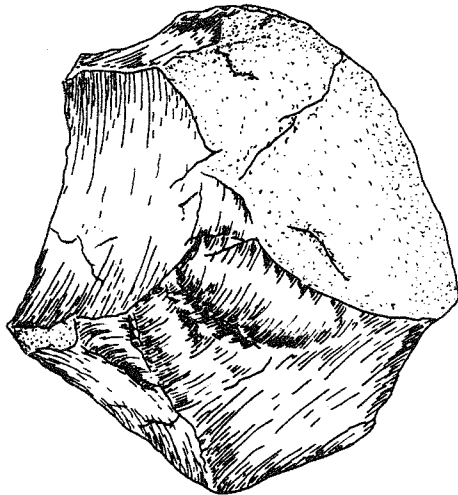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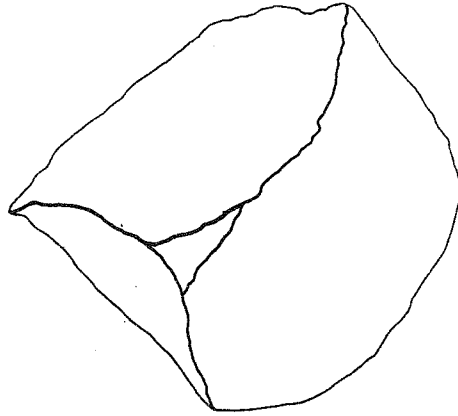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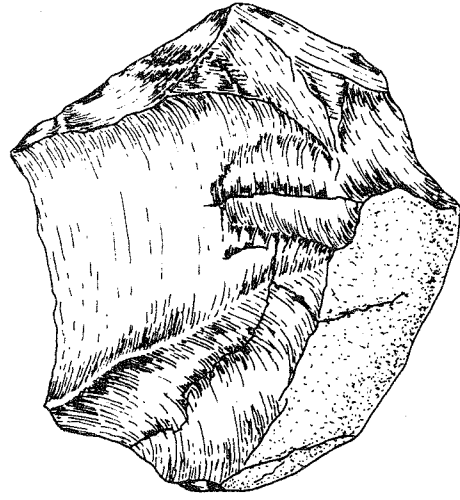
거친 흔적이 보이며 상단부는 도중에 파손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길이는 발견상태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측면에 남아있는 타격흔으로 보아 원래의 석핵에서 이탈하기 이전에 이미 옆에서 다른 박편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며, 양측면에 정교한 잔손질을 하였다. 타격대면에서 길이 방향으로 홈이 파여있는데, 타격시에 부수적으로 생긴 이차박편의 흔적이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돌날 몸체에 홈짜기 기법(fluting)을 가한것으로 보인다. 길이 4.2, 폭 2.9, 두께 0.8

③ 석영제 톱니날 새기개(「도면 12-C」, 「사진 34」)

거의 유리질에 가까운 미세구조의 석영으로 제작된 소형 석기로서, 석편의 측면에 네 번에 걸친 잔손질을 통하여 톱니형태의 날을 세웠다. 버리는 석재에 가까운 소형석편(chip)을 이렇게 재가공한 이유는, 아마도 석재의 우수한 성질 때문에 반복적인 재사용(recycling)을 통하여 양질의 석재를 항상 보유하려는 예비전략(curation)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길이 2.5, 폭 1.7, 두께 0.6

④ 석영제 찌개(「도면 13」, 「사진 29, 30」)

「도면 12-B」와 공반되어 발견된 찌개이다.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대형박편을 제거한 흔적이 보이며 주변부에는 날카로운 날이 가로지르고 있다. 원형의 천석을 집중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보인다. 특징적인 제작방식으로서, 일차적으로 박편을 제거한 이후에도 타격흔에서 생기는 능선을 타격면으로 설정하여 계속적으로 박편을 뜯어 나간 흔적이 나타난다. 형태면으로 보아 임진-한탄강 유역에서 주먹도끼와 발견된 찌개와 거의 유사하며 석재면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길이 9.4, 폭



「도면 13」 D pit 출토 석영제 찍개

10.4, 두께 8.8

(3) 지표수습석기들

① 석영제 반월형 굽개(「도면 14-A」)

유적지로부터 동북쪽에 위치하는 노출면에서 발견되었다. 박편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월형 측면에 돌러가면서 정교한 가공을 한 흔적이 보인다. 석기의 좌측면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성형석기의 일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원석의 형태에 일차적으로 돌러가면서 박편을 가공한 다음에 잔손질로 마무리 한 흔적이 측면날에서 보여진다. 길이 5.25, 폭, 2.95, 두께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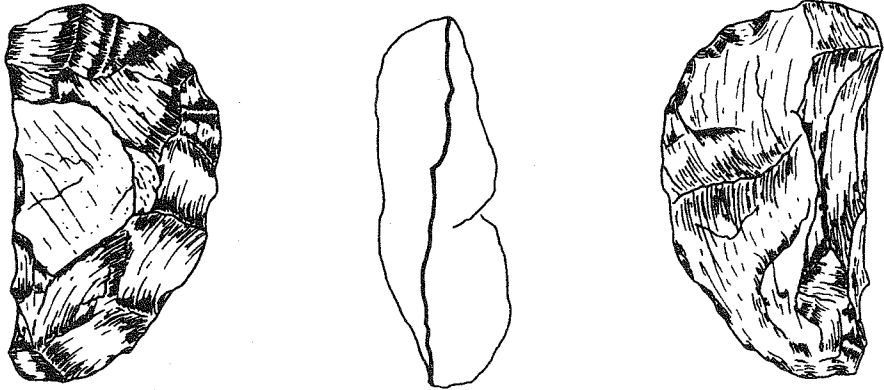
② 석영제 측면날 굽개(「도면 14-B」, 「사진 45의 중앙」)

유적지 북쪽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박편제 굽개이다. 미세한 질의 석영으로 제작되었다. 타격대면과 타격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측면에 정교한 잔손질 기법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잔손질 흔적이 의도적으로 가해졌는지 아니면 자연날을 사용하면서 생긴 사용흔인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길이 3.35, 폭 4.5, 두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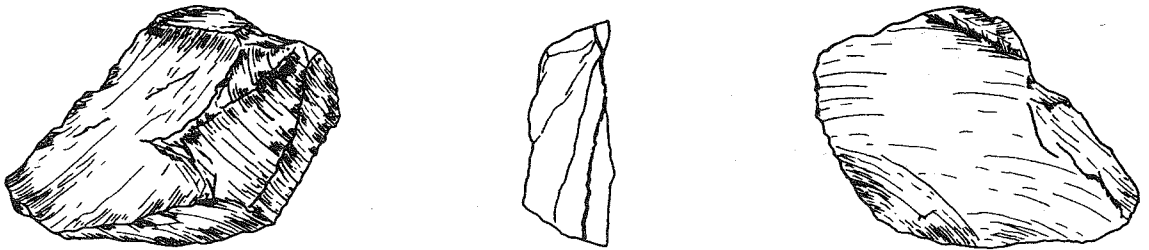
③ 석영제 톱니날 굽개(「도면 14-C」, 「사진 45의 우측, 46」)

유적지 동쪽에서 수습된 석기로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순백색 석영으로 제작되었다. 타격대면이 뚜렷하게 남아있지만 박편의 형태상 말단부는 파손, 이탈된 것으로 보인다. 우측면에 일정한 간격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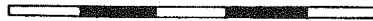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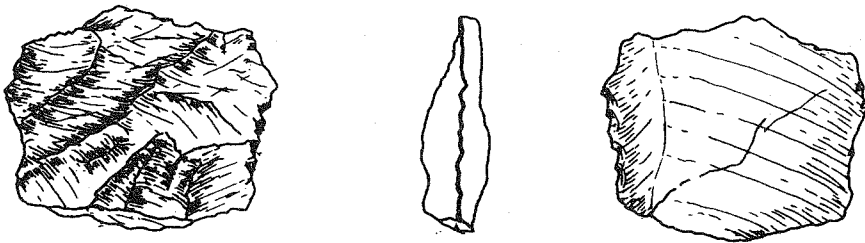
A



B



C



「도면 14」 지표수습 소형 석기들
 (A. 반월형 긁개, B. 측면날 긁개, C. 톱니날 긁개)

로 교차 잔손질을 가하여 톱니형태의 날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길이 3.1, 폭 3.65, 두께 0.95

④ 석영체 등댄 굵개(「도면 15-A」)

자연면이 남아있는 박편의 우측면에 두 번의 타격을 가하여 등(backing)을 대었다. 손으로 직접잡고 사용하기 위한 배려로 보이는데,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는 좌측면의 자연날에는 미세한 사용흔이 나타나고 있다. 타격대면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박편의 중간에 둔중하게 각진 타격흔(bulb of percussion)이 남아있다. 길이 4.65, 폭 2.1, 두께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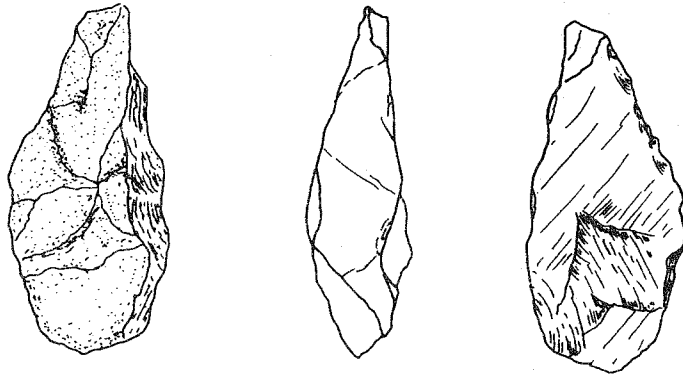
⑤ 석영체 새기개(도면 15-B」)

박편에 부수적으로 가공을 하여 침두부를 형성한 흔적이 보인다. 박편의 중앙부에 원석의 굴곡에서 기인한 능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이는 폭이 좁은 소형박편을 얻어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석의 말단부를 가격하여 박편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소형박편에 추가가공을 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지와 가격(holding and blowing)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견상 단순한 구조의 소형석기에도 나름대로 정밀한 작업인지가 필요하였음을 말 해준다. 길이 3.65, 폭 1.5, 두께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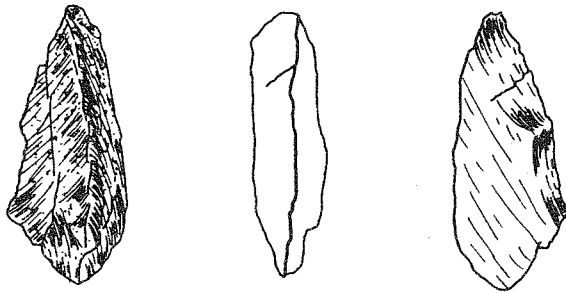
⑥ 석영체 돌날(「도면 15-C」)

「도면 12-B」와 유사한 형태로 보이지만 크기면에서 훨씬 작다. 타격대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양측면에 사용흔이 보인다. 말단부는 파손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굵은 석영 입자들이 사용도중에 파쇄되면서 이탈한 흔적으로 보인다. 길이 2.9, 폭 1.75, 두께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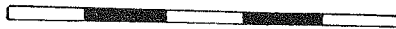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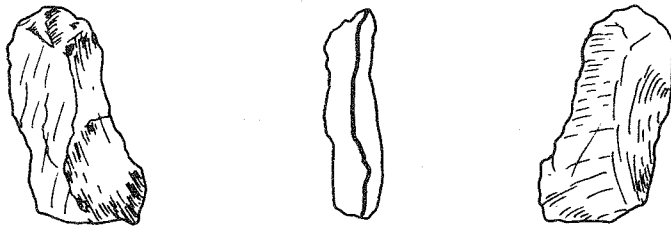
A



B



C



「도면 15」 지표수습 소형 석기들
(A. 등면 긁개, B. 세기개, C. 돌날)

⑦ 호온펠스제 돌날(「도면 16-A」, 「사진 47의 좌측」)

여타의 석영제 석기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석기로서 유물포함층 내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다. 본격 발굴시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황갈색 실트층이나, 교란 이전에 표토층 내에 분포하고 있었을 홍적세 최말기층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옥과유적이나 기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후기 구석기 시대 최말기 석기들과 석재 및제작 기법이 유사하다. 군데군데 사용흔이 남아있다. 길이 3.8, 폭 2.35, 두께 0.85

⑧ 호온펠스제 세석인 석핵(「도면 16-B」, 「사진 47의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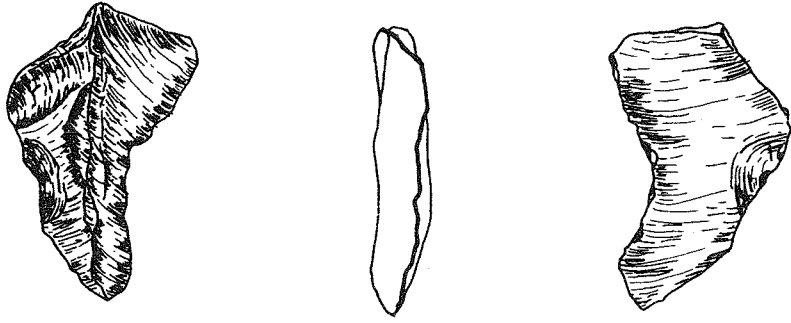
전자와 같은 석재로 제작된 석기로서 타격대면에서 두번 이상의 가격을 하여 세석인을 얻어낸 흔적이 보인다. 기저부가 뾰족하고 파쇄된 점은 본 석핵을 지면이나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세석인을 얻어낸 흔적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길이 3.65, 폭 1.5, 타격대면 두께 2.30

⑨ 반암제 돌날(밀개)(「도면 16-C」, 「사진 47의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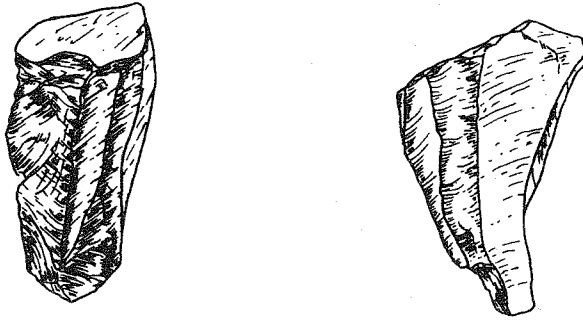
흑색의 반암을 사용하여 제작한 돌날이다. 석재의 곳곳에 석립이 분포하고 있어서 타격의 충격이 원활하게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곳곳에 거친 굴곡이 형성되어 있다. 말단부에 가공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밀개로 간주할 수 있겠다. 길이 4.7, 폭 2.2, 두께 1.6

⑩ 석영제 찌개(「도면 17」, 「사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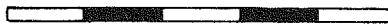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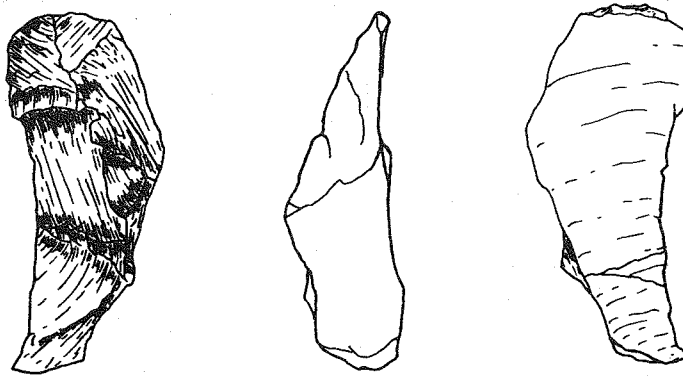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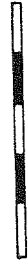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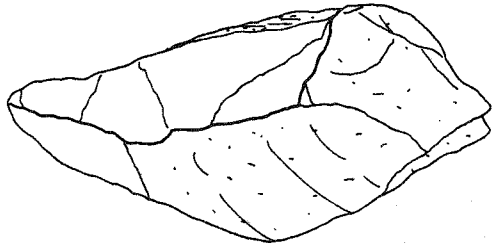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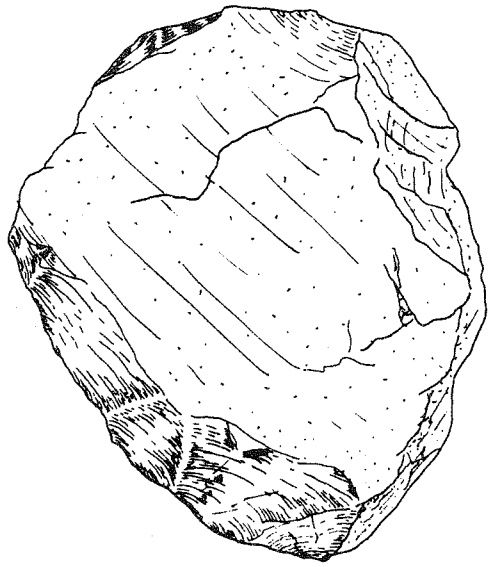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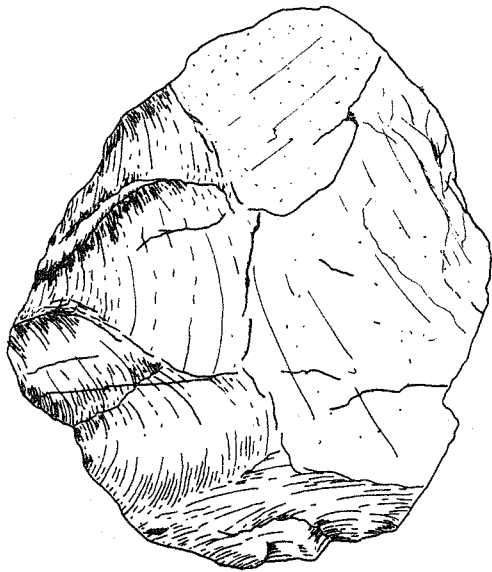


「도면 16」 지표수습 최말기 구석기들

(A. 호온팰스제 돌날, B. 호온팰스제 세석인 석핵, C. 반암제 돌날)



「도면 17」 지표수습 석영제 찌개



유적지 서부의 숲속에서 발견된 찌개로서 부분부분 마모가 되어있지만 타격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입자가 거친 석영을 사용하여 한쪽 방향으로 박편을 제거하고 반대 방향에 추가적으로 타격을 가하여 날을 세웠다. 길이 9.25, 폭 10.8, 두께 4.7

VI. 종합 고찰

지금까지 고찰한 평창리 유적의 층위와 유물 분포상 및 개별유물들을 통하여 본 유적의 의미와 차후 진행될 추가 조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다. 우선 유적 입지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이 지역은 기존의 한반도 구석기 유적들과는 달리 강가나 하천에 인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주변에 하천이 전혀 분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곡리 유적이나 석장리 유적과는 달리 대규모 하천의 인접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유적의 점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유적의 점거에 있어서 수자원의 이용이 더 이상 제한요소는 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석기를 제외한 고인류 행위의 증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냥행위나 이동전략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의 산 기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모를 보여주는 지형여건상, 평창리 유적의 입지조건은 당시 거주하던 고인류에게 비록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는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상이 아닌 최적(optimal)의 점거

조건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석기군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한 석기기술을 가진 고인류들은 유적을 점거하는데 있어서 보다 증가한 이동성(mobility)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상의 한계요소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석재면에서도 볼 때, 평창리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영제 석기들은 주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재들이지만 양질의 석재들은 유적 외부 어디에선가 유입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부로부터 수자원 및 정교한 석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석재 획득은 석기 제작에 대한 발달된 지식과 증가한 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¹⁾

석기제작 기술에서 볼 때, 기존의 조잡한 석재로만 인식되던 석영을 집중적으로 가공하였으며, 기법면에서도 돌날이나 톱니날과도 같은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플린트나 흑요석 석기와도 같은 미세질의 석재에서만 발달된 석기 제작 기술이 나타난다는 통상적 입장을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증거이다. 평창리 유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형석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각종 소형석기들은 서구 구석기의 편년상 후기 구석기 시대의 제작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서구 구석기의 편년체계가 본 유적,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구석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존의 석기제작 기술인 석영 석기 제작이 반복, 축적되면서 기술상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돌날의 경우는, 현재 남아프리카의 Howieson's Poort나²⁾ 중동 레반트 지역의 Boker Tachtit의 예

1) Bisson, M. S. 1990 Lithic reduction sequences as an aid to the analysis of Late Stone Age quartz assemblages from Luano Spring, Chingola, Zambia. *African Archaeological Review* 8: 103- 38.

에서 알 수 있듯이³⁾, 전 세계 각 지역의 자체 석기 제작기술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동시다발적인 기술상의 진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평창리 유적에서 발견된 다수의 석영제 돌날과 정교한 새기개 등의 소형석기들은 기존의 조잡한 석기 제작기술을 축적, 발달시킨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기/후기 구석기 전이 문제 및 현생 인류의 발생과 파급과도 같은 복잡한 현안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후기 구석기 공작의 발생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창리 유적과도 같은 후기 구석기적인 특성의 석기 공작은 한반도의 여타 유적 및 인근 지역인 중국, 일본, 시베리아 지역의 예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제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비록 지표수습품이기는 하지만 소위 최말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호온펠스제 및 반암제의 돌날들과 세석인 석핵이 동일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전혀 다른 석재를 사용했다는 점과, 눌러떼기와 같은 기술상의 변혁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최말기 구석기공작과 이전의 석영제 석기 제작기술이 상호 연속성을 가진다는 데에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최말기 구석기들이 특정한 지역 내에서 국지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홍적세 최말기에 고인류들

2) Mitchell, P. 1988 The late Pleistocene early microlithic assemblages of southern Africa. *World Archaeology* 20(1): 27- 39.

3) Marks, A., and P. Volkman 1987 Technological variability and change seen through core reconstruction. In *The Human Uses of Flint and Chert.* edited by G. de G. Sieveking and M. H. Newcom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이 한반도의 거의 전지역에 접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현생 인류로의 형질적 전이 및 발달한 석기 제작 기술, 이에 따른 생존 능력의 강화는 세계 전 지역에 걸친 적응방산을 가속화 시켜 왔으며⁴⁾, 이에 따른 고인류 접거 흔적 및 유적지의 증가는 당연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곡리 유적에서 세석인 석핵을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에만 근거하여 그 유적의 AT연대가 세석인 석핵을 반출하는 후기 홍적세 최말기층의 연대에 해당된다는 식의 舍泡絶叫는 더 이상 한반도 구석기 연구의 논지가 될 필요는 없다⁵⁾.

차후 진행될 조사는 평창리 유적의 이러한 의미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정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본 시굴조사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한 작업들, 특히 B pit와 D pit의 확장 및 최말기 구석기가 분포할 것으로 생각되는 황갈색 실트층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화산재 분석을 통한 절대연대 측정과 토양 및 꽃가루 분석을 통한 고환경 복원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시굴조사에서 밝혀진 바대로 평창리 유적은 단순히 한반도 구석기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후기 구석기 공작의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현 상황에서 보존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본 시굴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서, 장차 본 발굴을 통해 그 성격을 보다 정밀히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구석기 문화의 성격의 일단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4) Gamble, C. 1994 *Timewalker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5) 이현종 1997 전곡리 수습 기술격지의 의미. 한국 상고사학보 25집: 7- 20

ABSTRACT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of
Pyongchang-ri, Yongin City, Kyunggee
Province, Korea*

Kyunggee Provincial Museum
and
Department of Archaeology &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yongchang-ri site, situated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produced many Upper Paleolithic artifacts. The site was test excavated before construction by Samsung Co. was initiated. Pyongchang-ri is located in a flat basin surrounded by several low mountains. The stratigraphy may be divided into four main layers, from bottom to the top: granite cobble/sand (GCS); reddish brown silt (RDS); yellowish brown silt (YBS); and top soil.

The vast majority of the lithics were discovered within the RDS layer, with similar artifacts being recovered during field surveying of the site and nearby area. The representative artifacts include: microblades, knife, projectile points, scrapers, blades, burins, and heavy duty tools (e.g. choppers and a hammerstone). The raw material of these artifacts consists predominantly of quartz (about 99.9%). It is the first evidence that highly advanced flaking technology with such a relatively crude raw material as quartz, was identified in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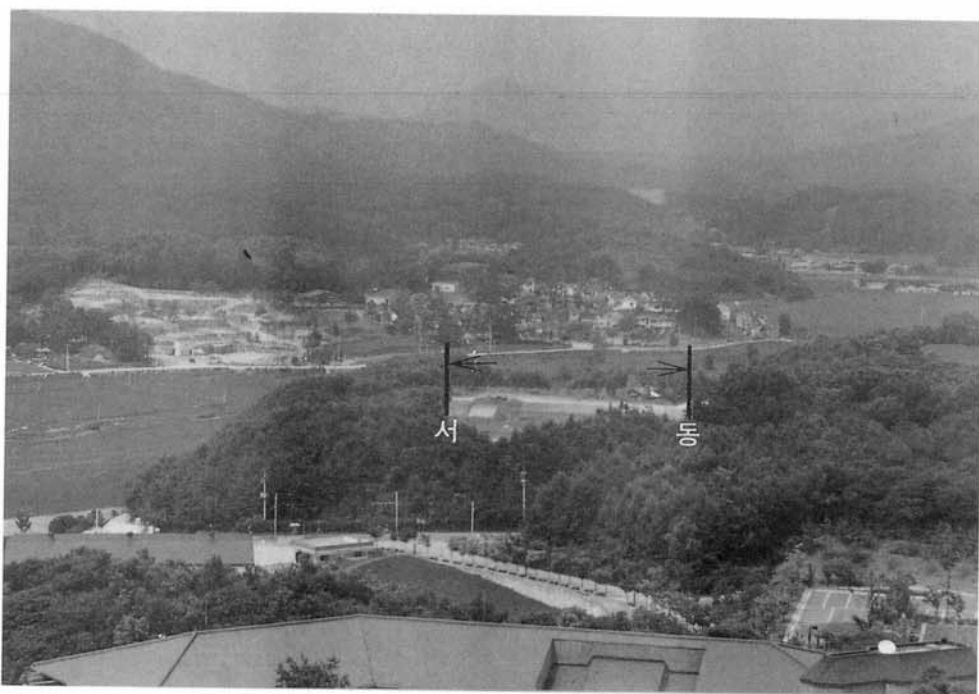
The interesting point about the Pyongchang-ri site is that most of the artifacts were made from high-quality quartz, which suggests that the hominids we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ypes (high-quality and low-quality) of quartz raw material. In addition, the high-quality quartz is not considered indigeneous to the area; indicating that it was brought in by the hominids for the sole purpose of producing high-quality stone tools. The combination of high-quality flaking technology, the variation in artifacts, and the use of exotic raw material for flintknapping at one site in the Korean Peninsula has yet to be discovered. Pyongchang-ri is the first such site to be reported.

Future excavations are critical and will be carried out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leoenvironment of the region, the hominids cultural level (i.e. technological capacity), and dating. The last point is important because dating of many Paleolithic site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seriously problematical. Accordingly, some radiometric and tephrochronological dating samples will be analyzed.

사 진



「사진 1」 용인 평창리 유적 전경(북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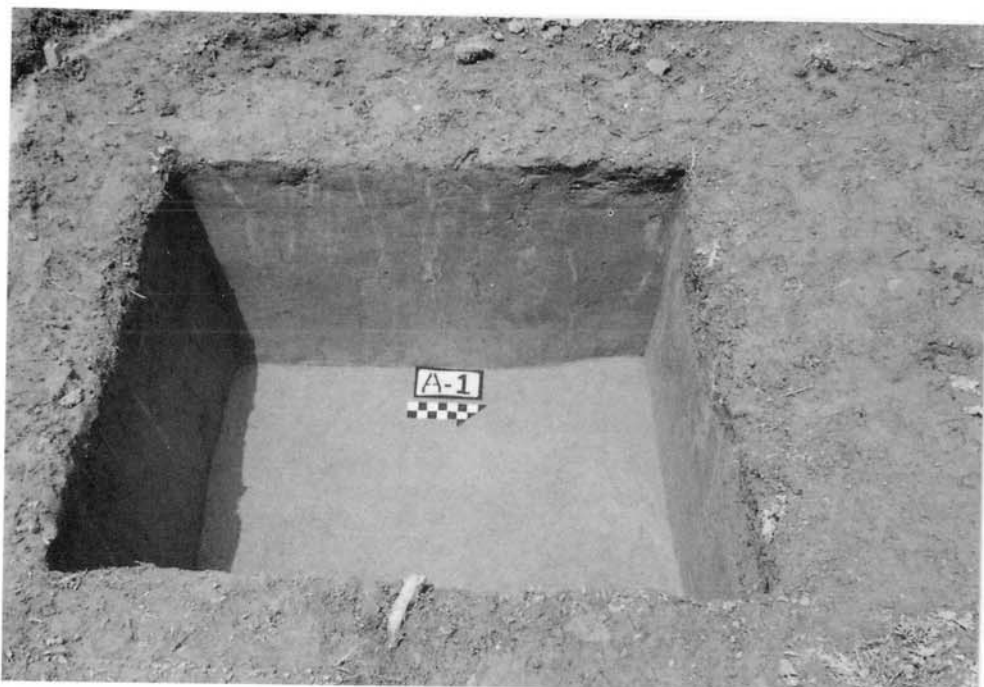
「사진 2」 용인 평창리 유적 전경(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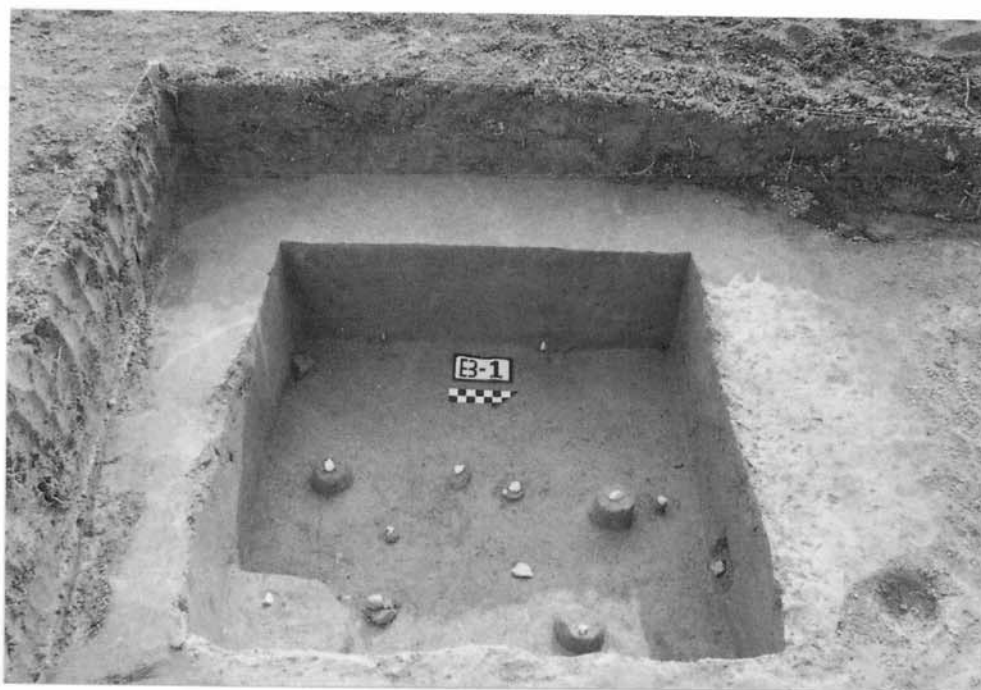
「사진 3」 A-1, B-1, C-1, D-1 pit 작업 과정



「사진 4」 B pit 하강 작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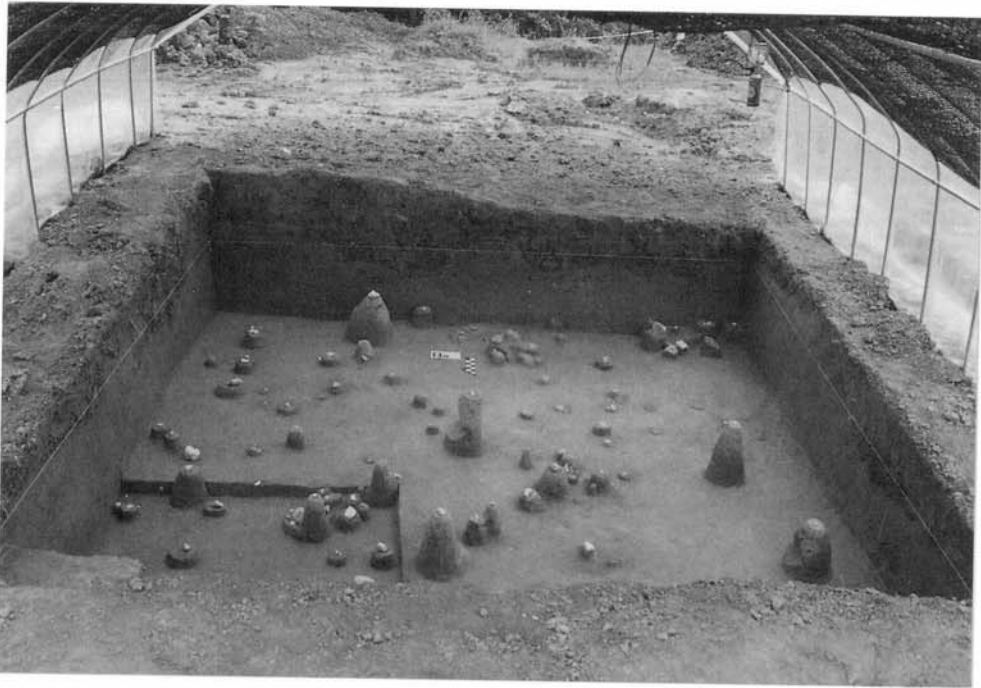
「사진 5」 A-1 pit 작업 완료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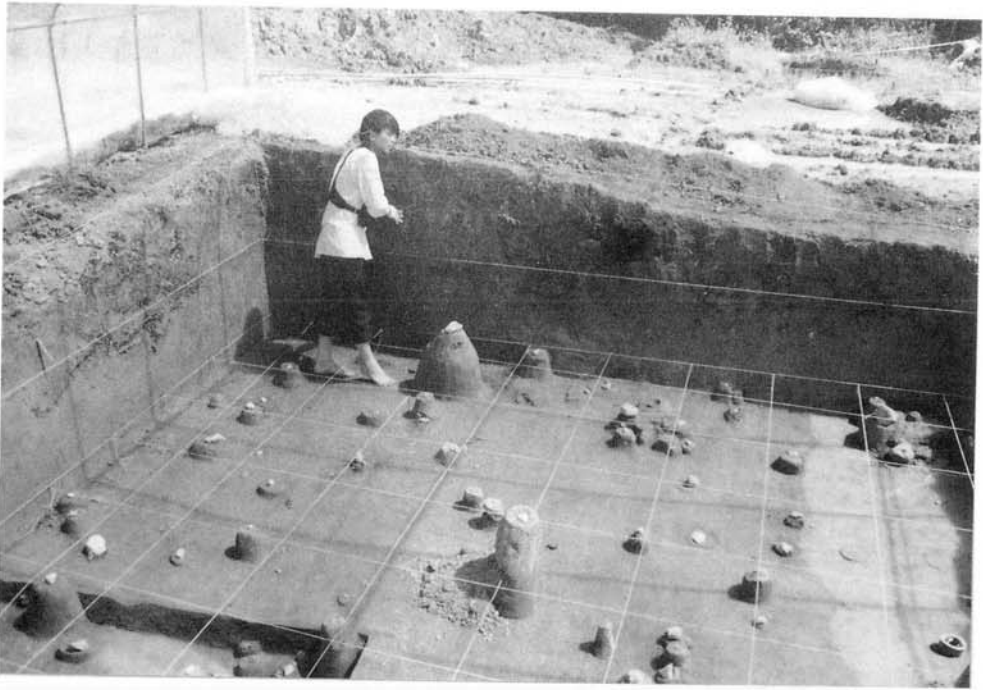
「사진 6」 B-1 pit 출토 유물 상태(동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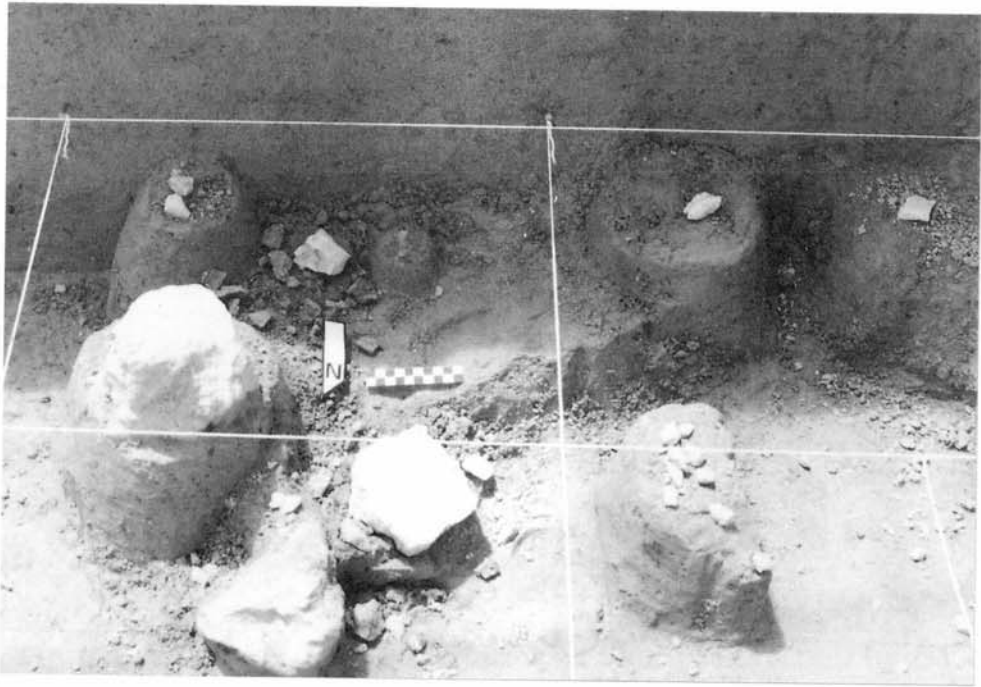
「사진 7」 B pit 확장 종료 및 유물 분포 상황(남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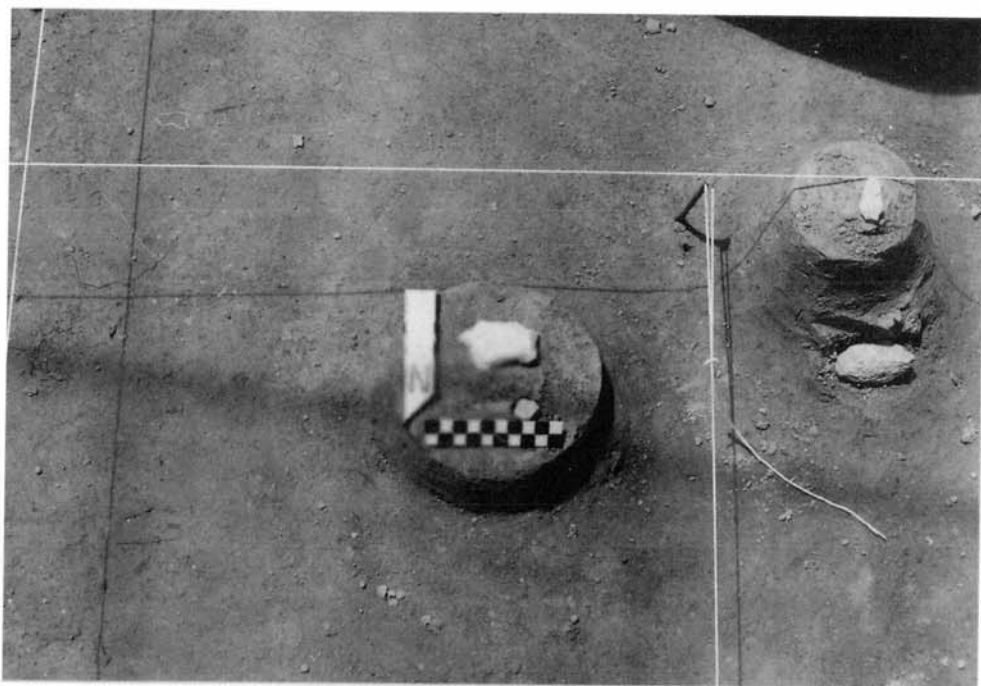
「사진 8」 B pit 확장 종료 및 유물 분포 상황(북벽에서)



「사진 9」 B pit 유구 실측과정



「사진 10」 B pit 출토 유물(서남벽 구석)



「사진 11」 B pit 출토 유물(유경 첨두기 반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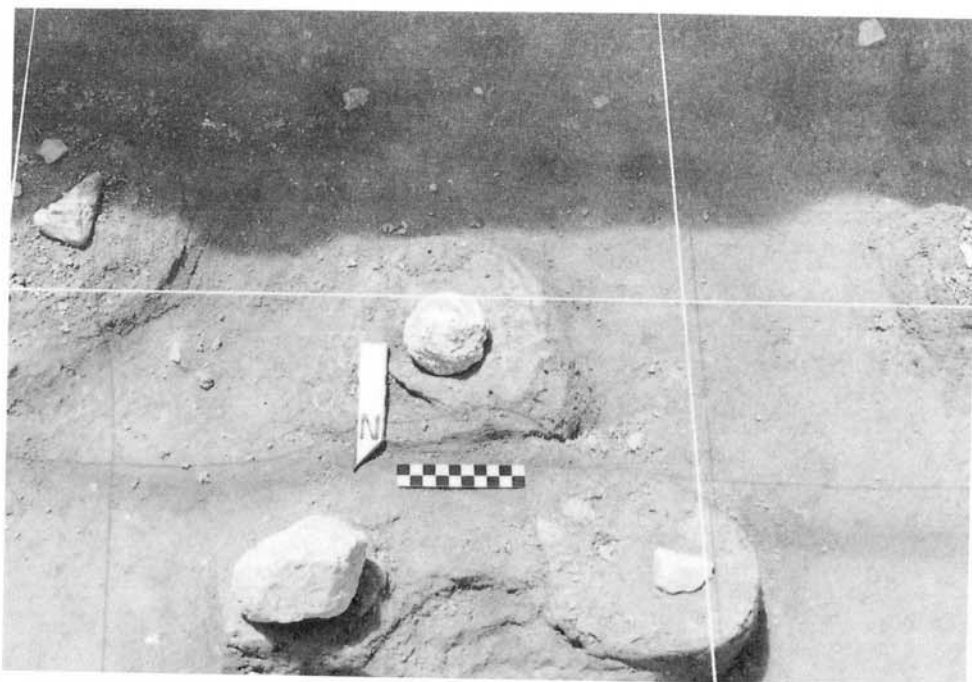
「사진 12」 B pit 출토 유물(유경첨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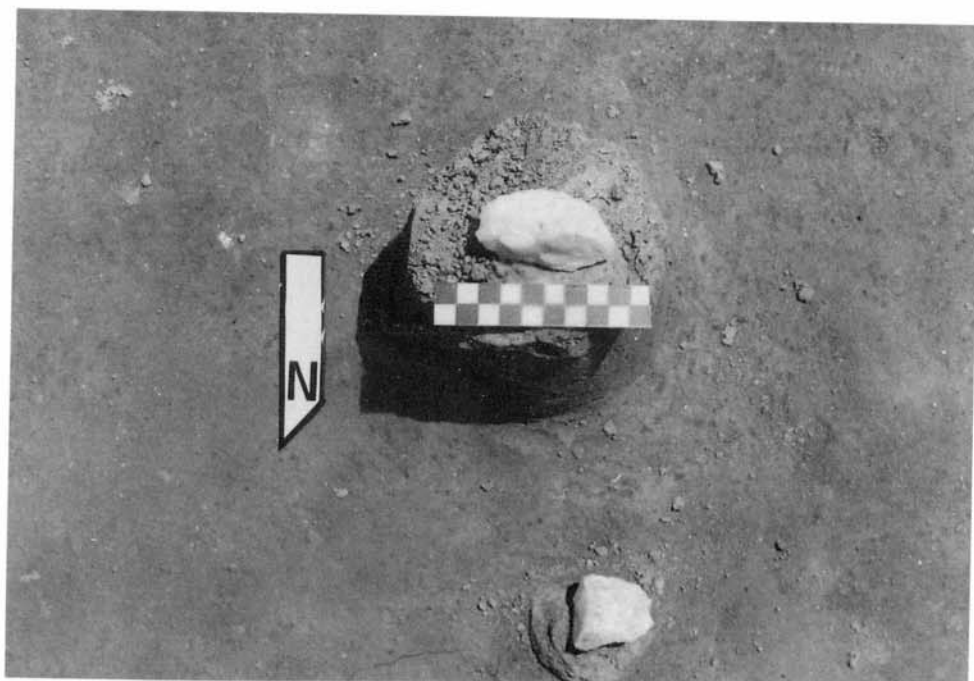
「사진 13」 B pit 출토 유물(유경 첨두기)



「사진 14」 B pit 출토 유물(접합 석기)



「사진 15」 B pit 출토 유물(화강암제 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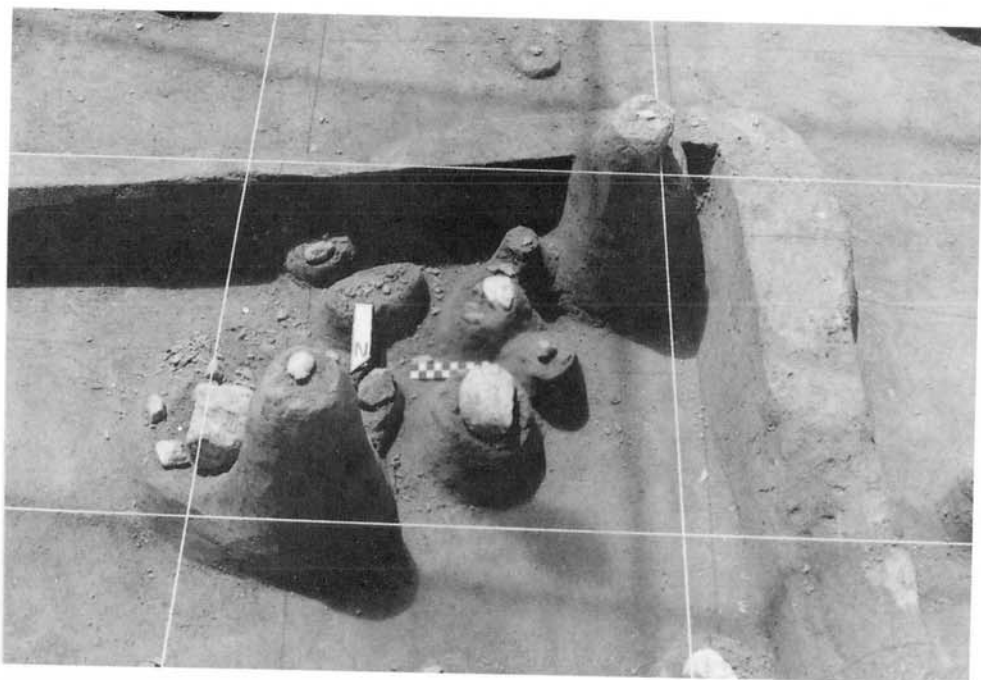
「사진 16」 B pit 출토 유물(석영제 굽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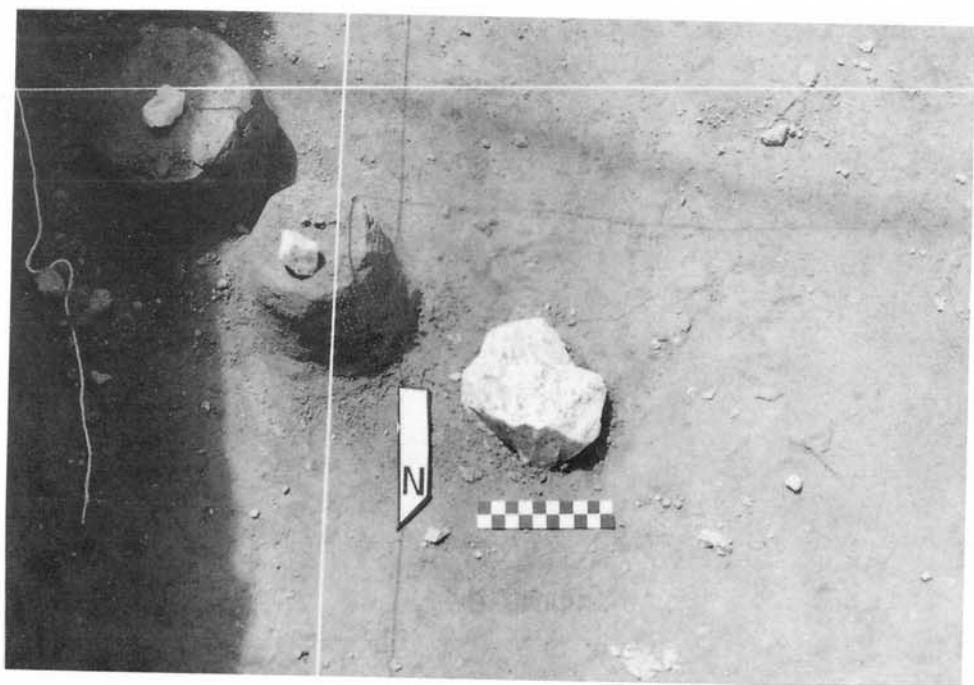
「사진 17」 B pit 출토 유물(석핵)



「사진 18」 B pit 출토 유물(유경 침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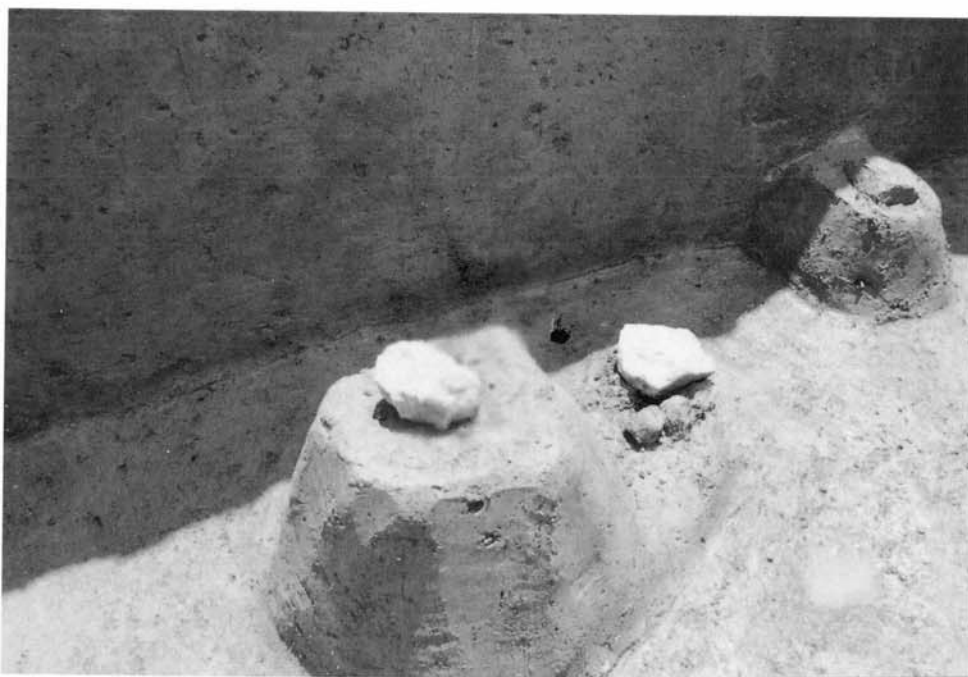
「사진 19」 B pit 출토 유물 상태(동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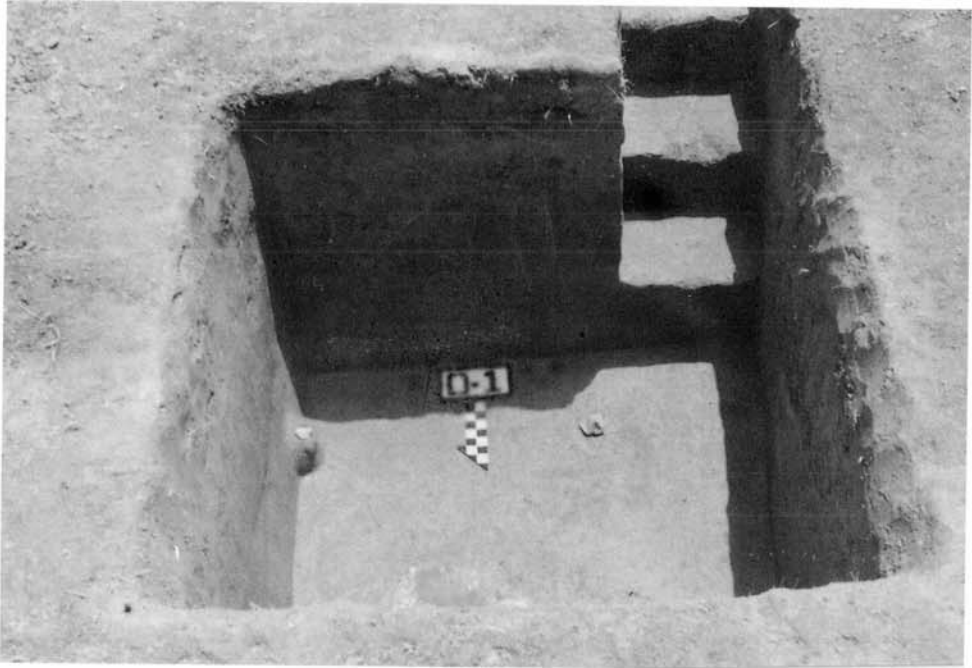
「사진 20」 B pit 출토 유물(규암제 석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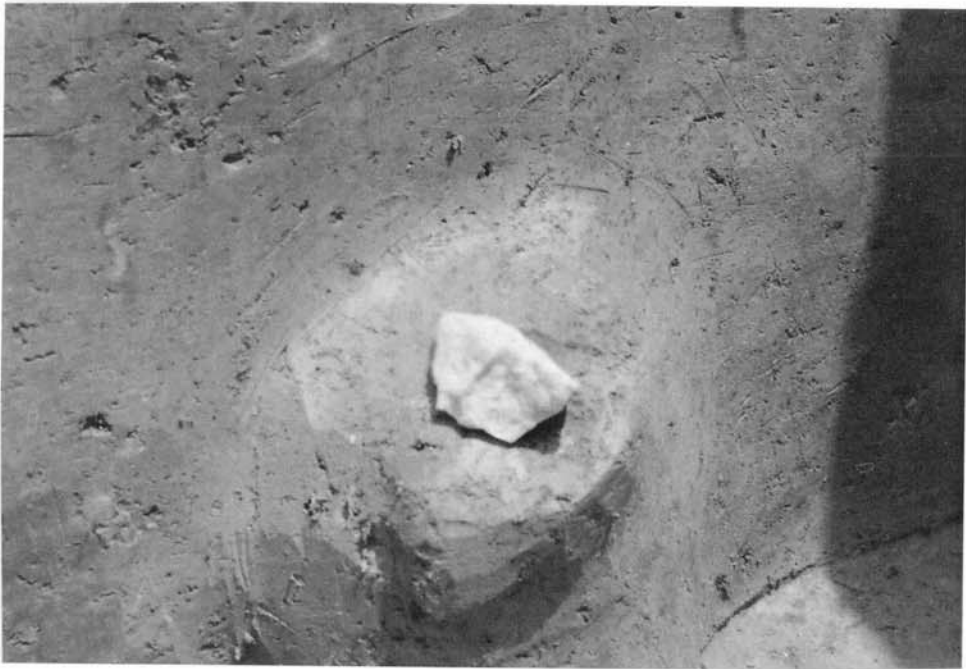
「사진 21」 C(-1) pit 유물 분포 상황



「사진 22」 C pit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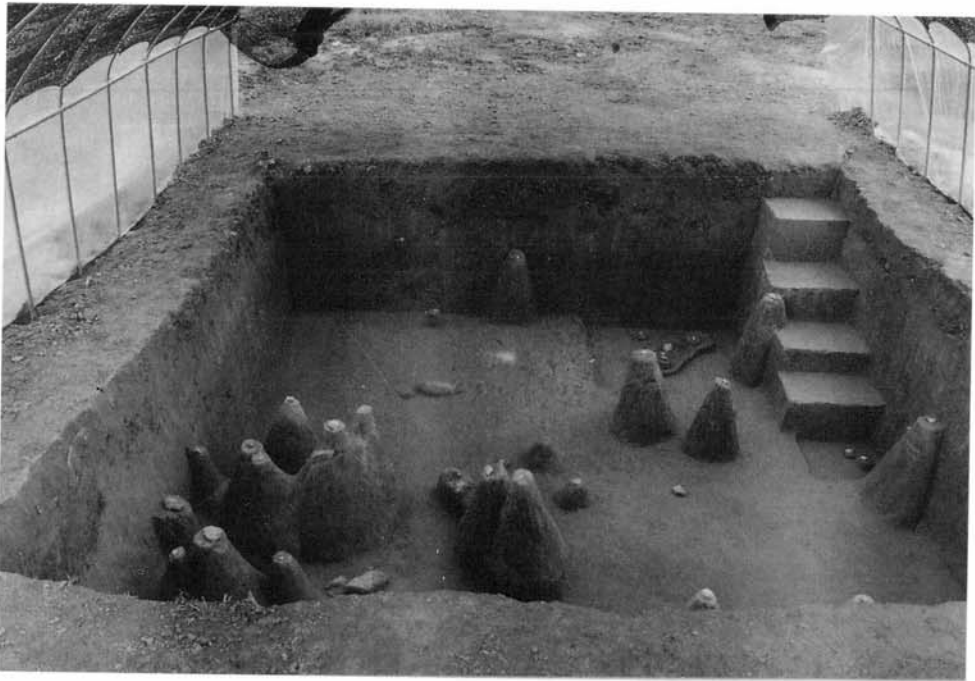
「사진 23」 D-1 pit 유물 분포 현황



「사진 24」 D-1 pit 출토 유물(석영제 금계)



「사진 25」 D-i pit 출토 굽개의 파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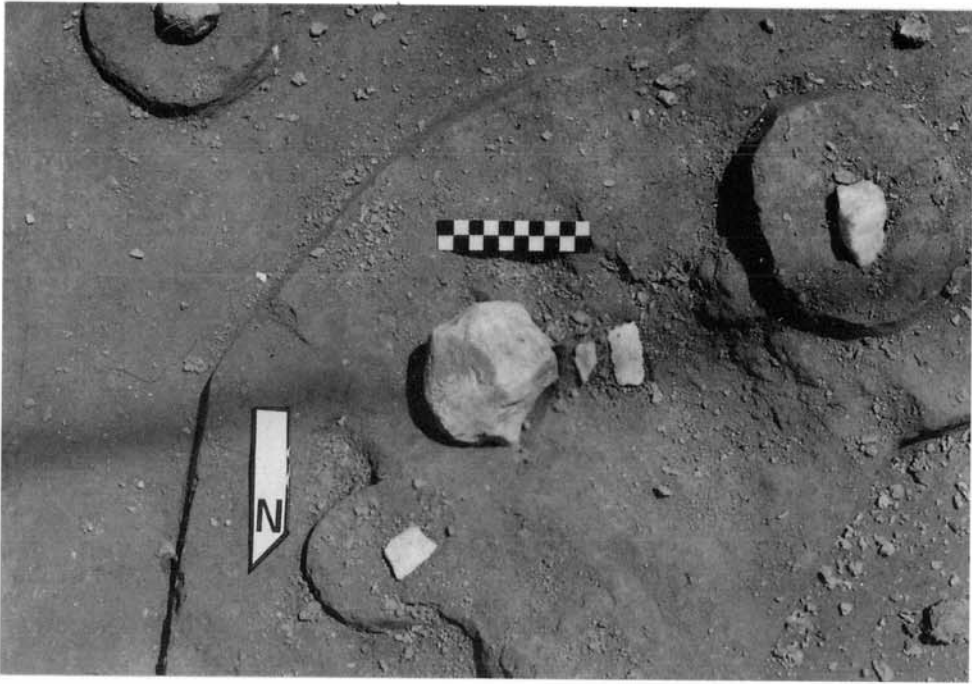
「사진 26」 D pit 확장 완료 상태 및 유물 분포상



「사진 27」 D pit 출토 유물(석영제 박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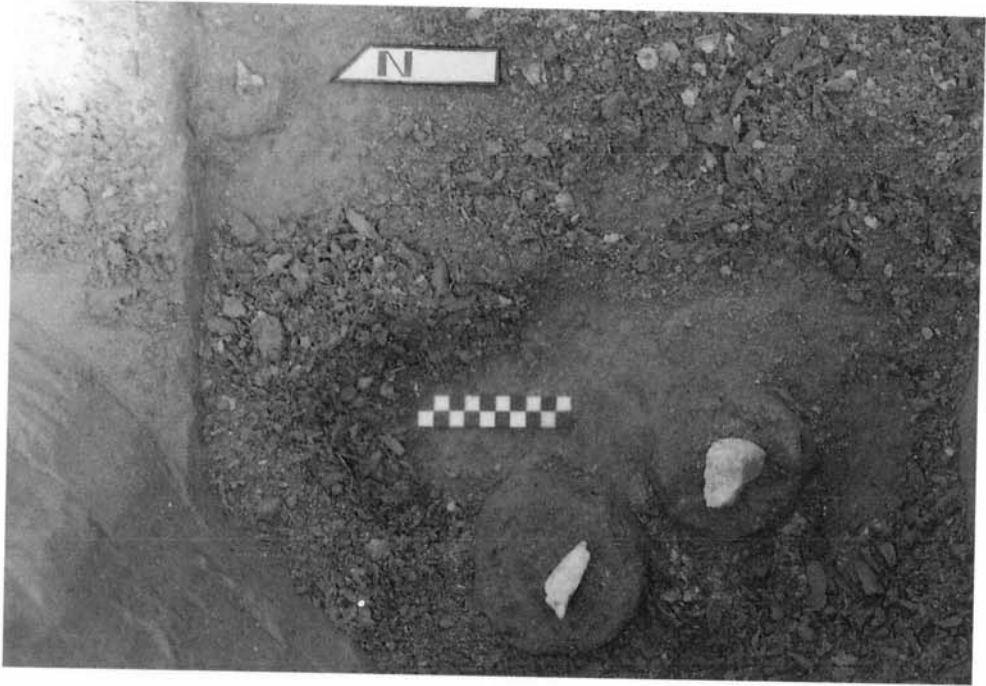
「사진 28」 D pit 출토 유물(석영제 석핵)



「사진 29」 D pit 출토 유물들 공반상태(찍개, 돌날, 송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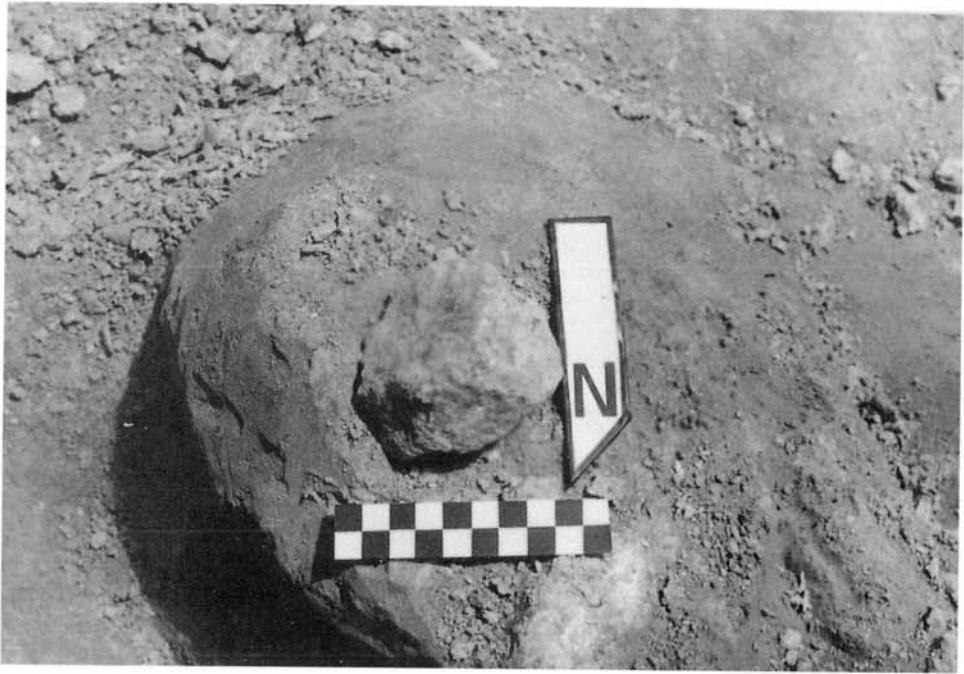
「사진 30」 D pit 출토 유물(찍개, 돌날, 송곳)



「사진 31」 D pit 출토 유물들(박편 및 버리는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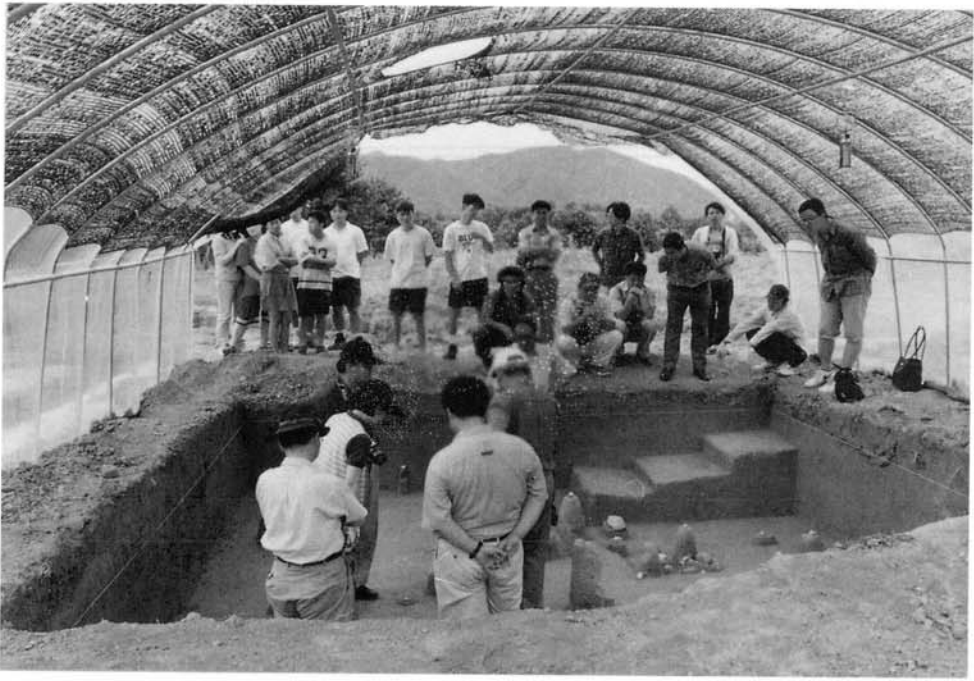
「사진 32」 D pit 출토 유물(석영제 금개)



「사진 33」 D pit 출토 유물(석영제 석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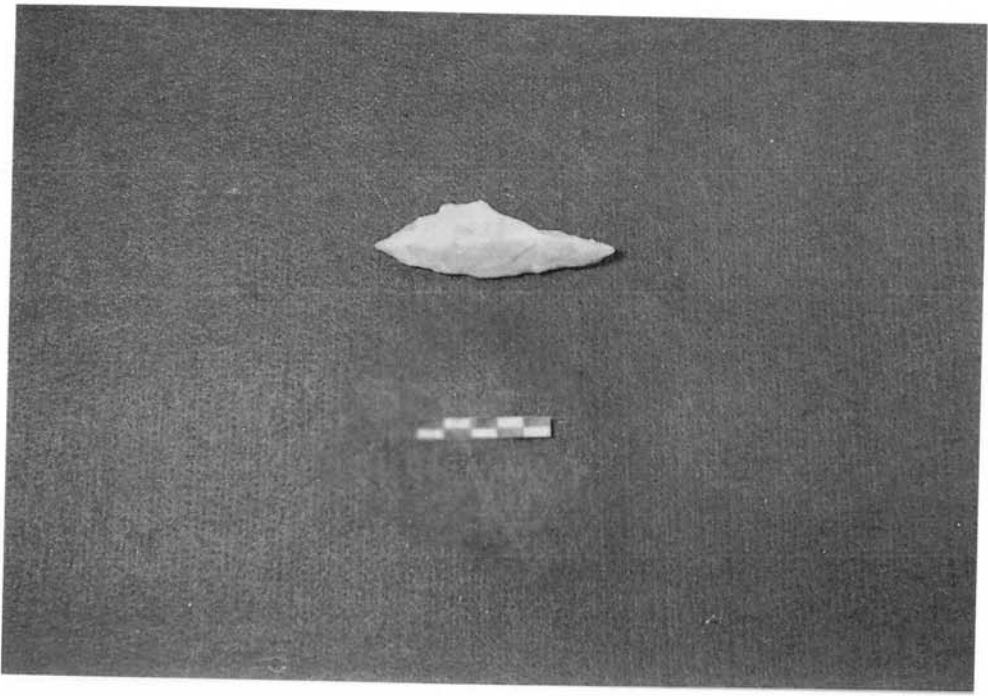
「사진 34」 D pit 출토 유물(석영제 톱니날 새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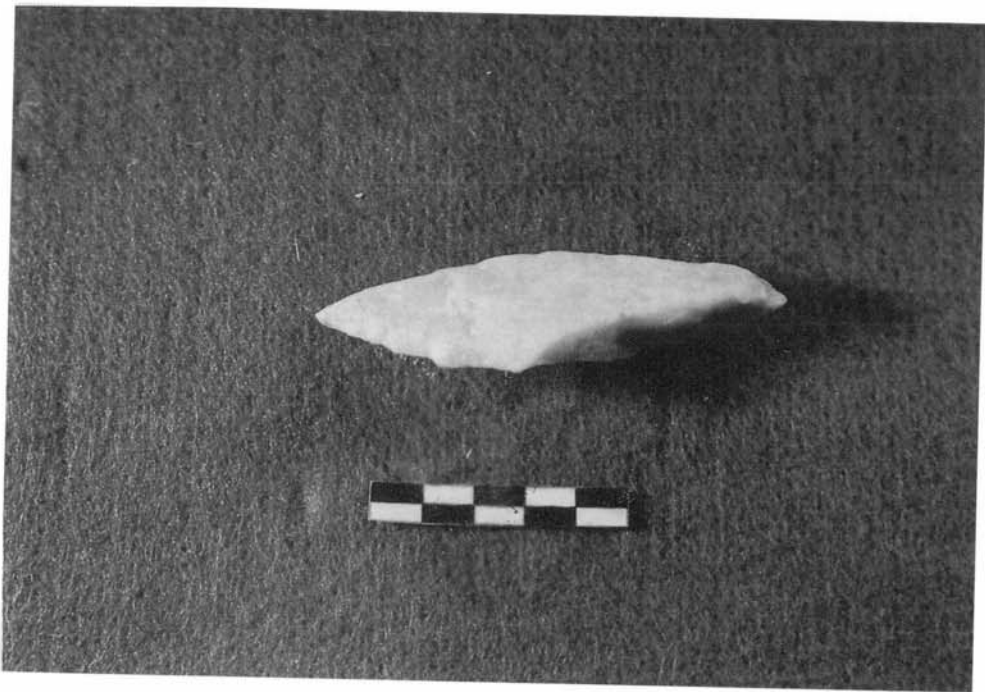
「사진 35」 지도 위원회 광경(B pit 내에서의 출토유물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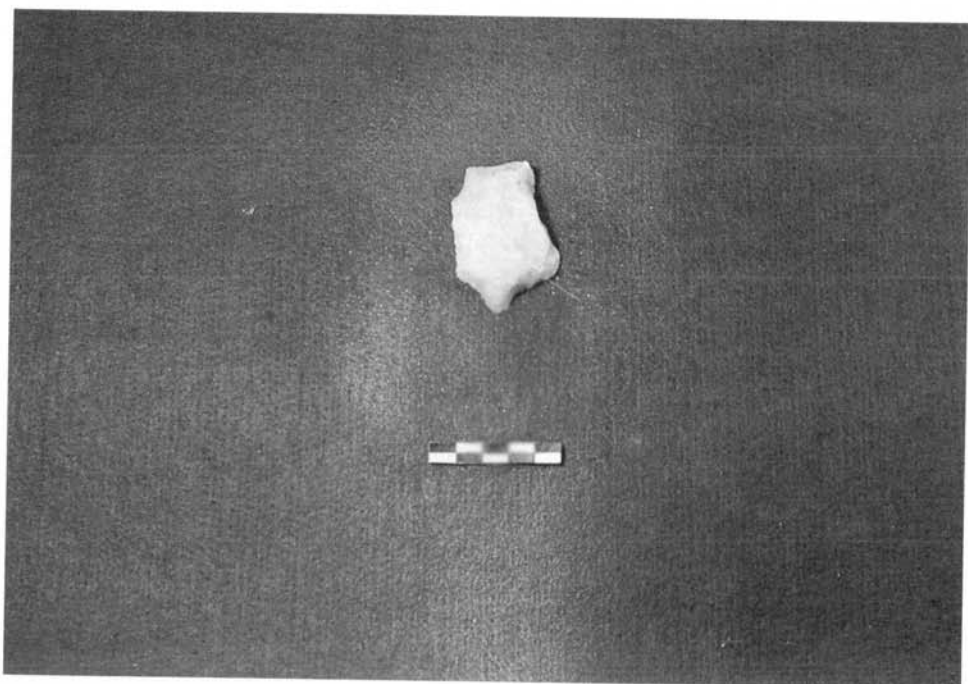
「사진 36」 지도 위원회 광경(현장 사무실에서 향후 발굴계획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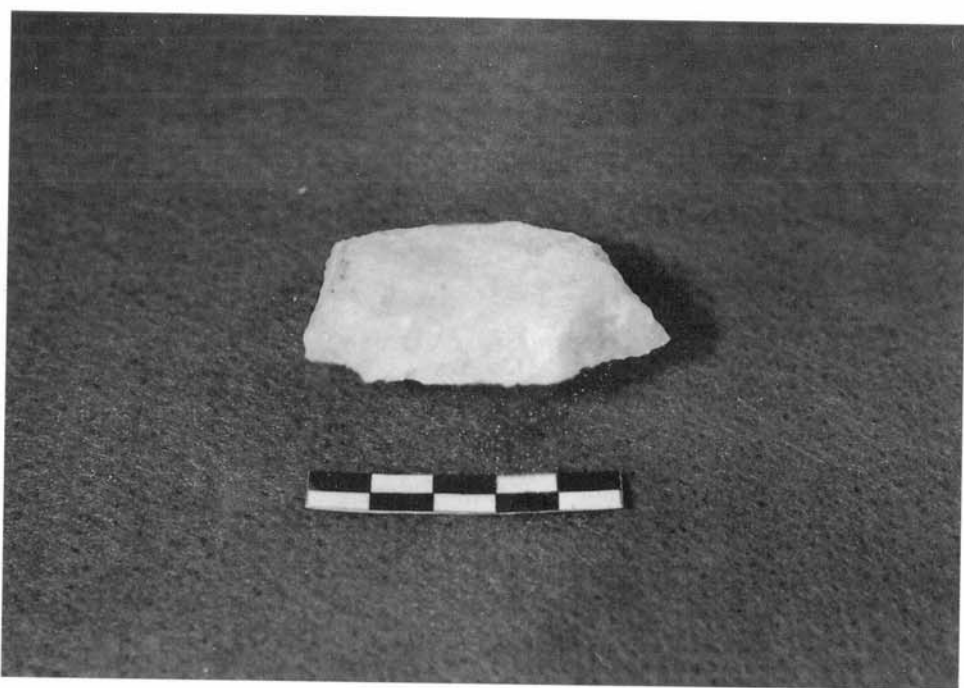
「사진 37」 B pit 출토 유견첨두기(knife형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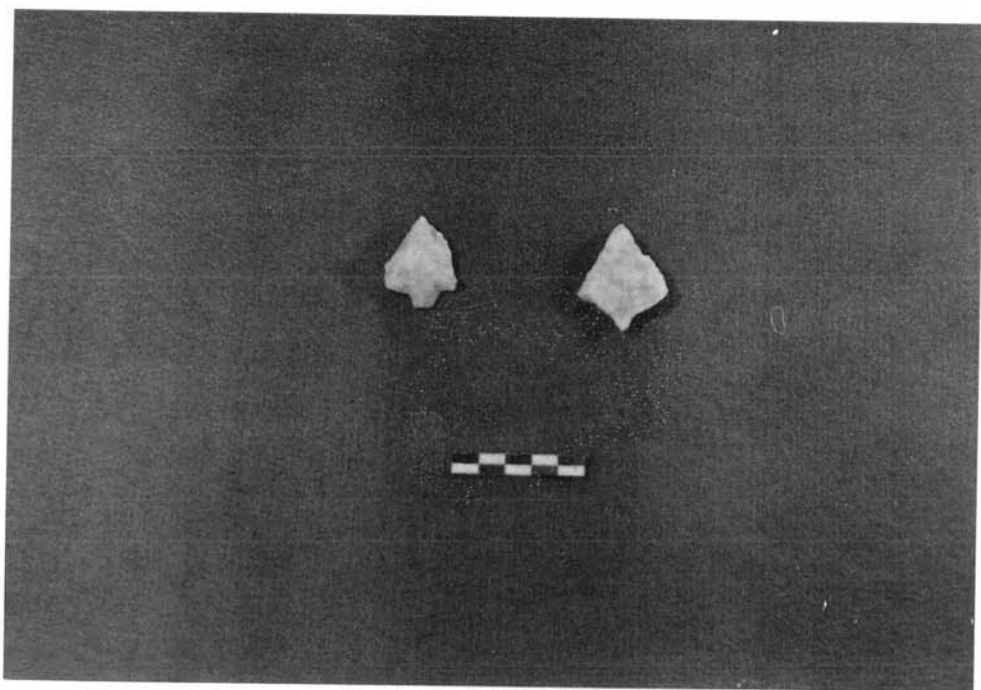
「사진 38」 B pit 유견첨두기의 첨두부 잔손질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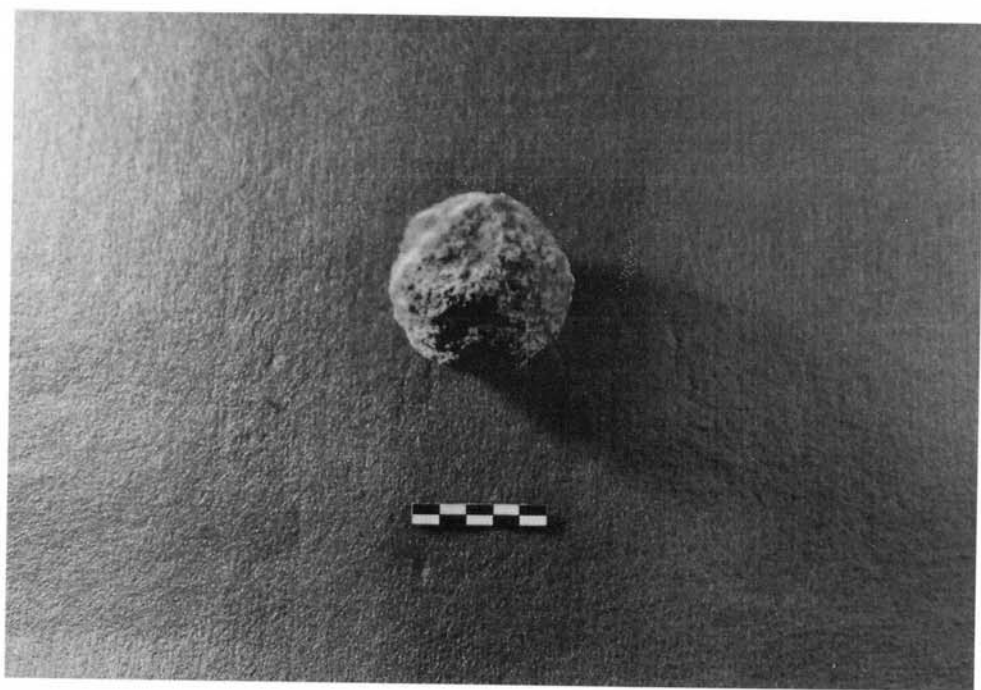
「사진 39」 B pit 출토 유경첨두기 반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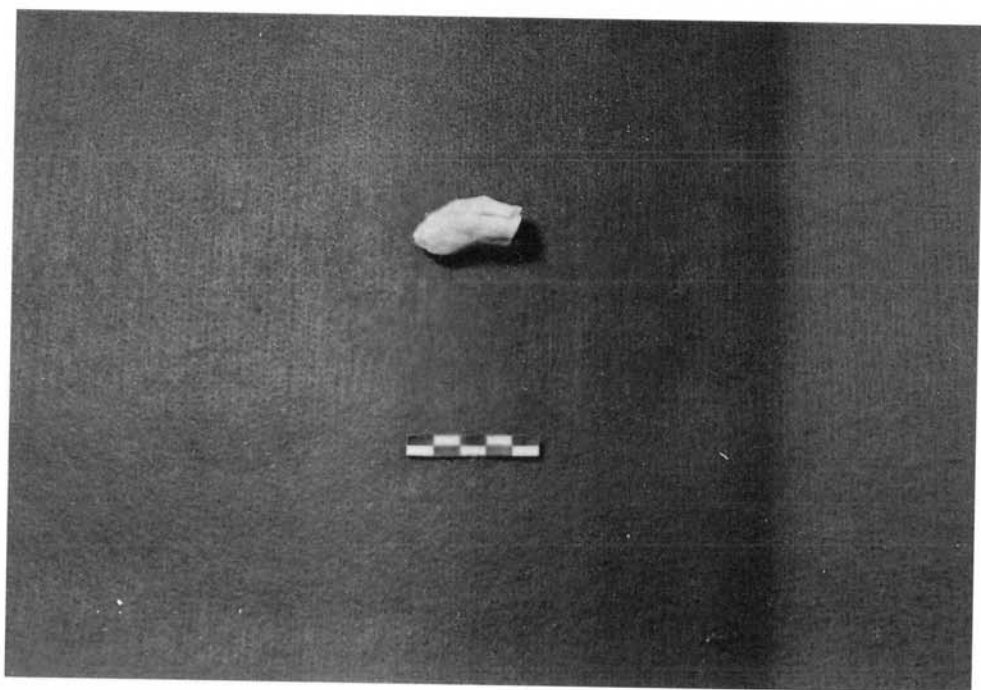
「사진 40」 B pit 유경첨두기 반제품의 측면 가공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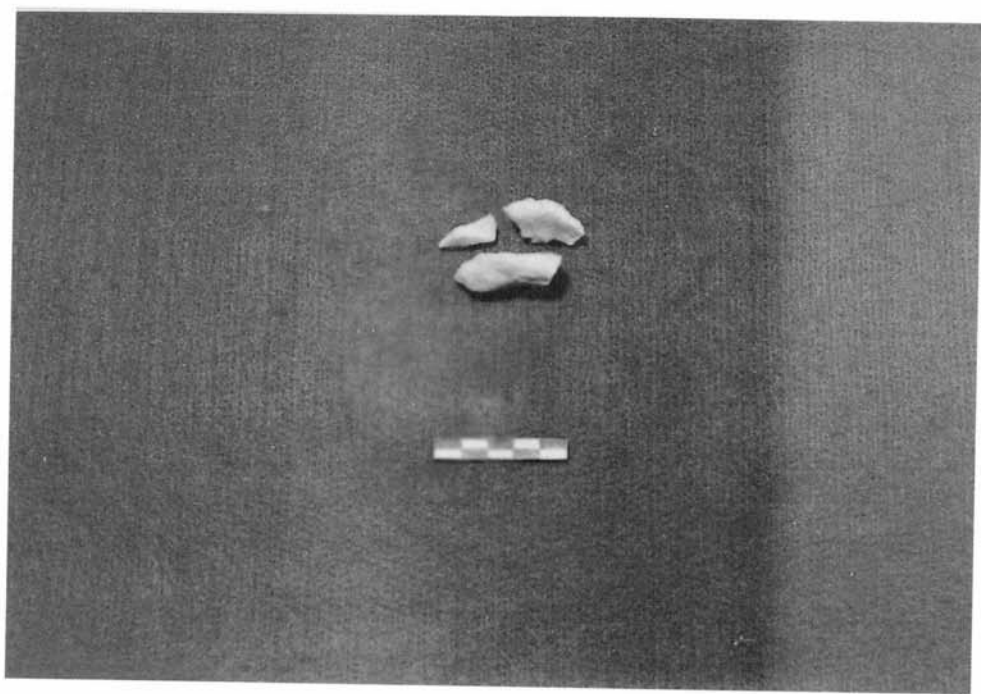
「사진 41」 B pit 출토 유경첨두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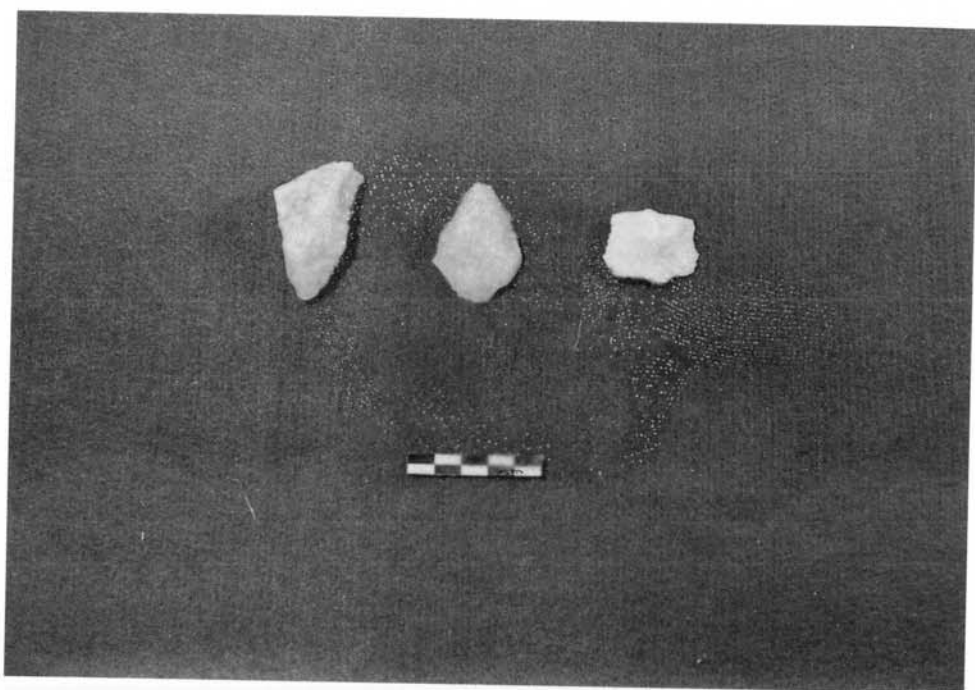
「사진 42」 B pit 출토 화강암 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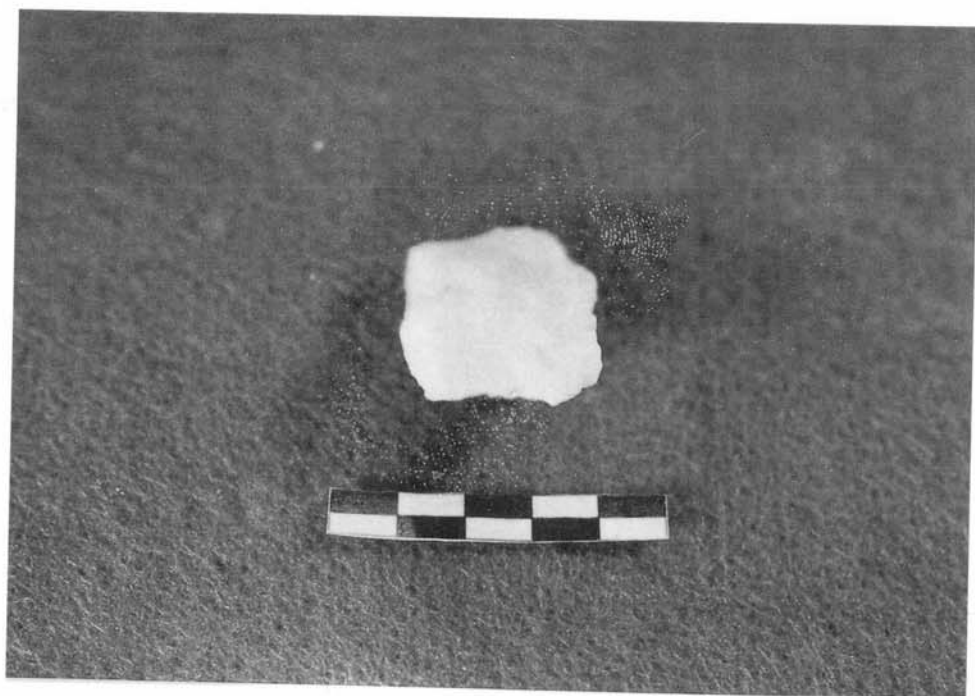
「사진 43」 B pit 출토 접합석기 접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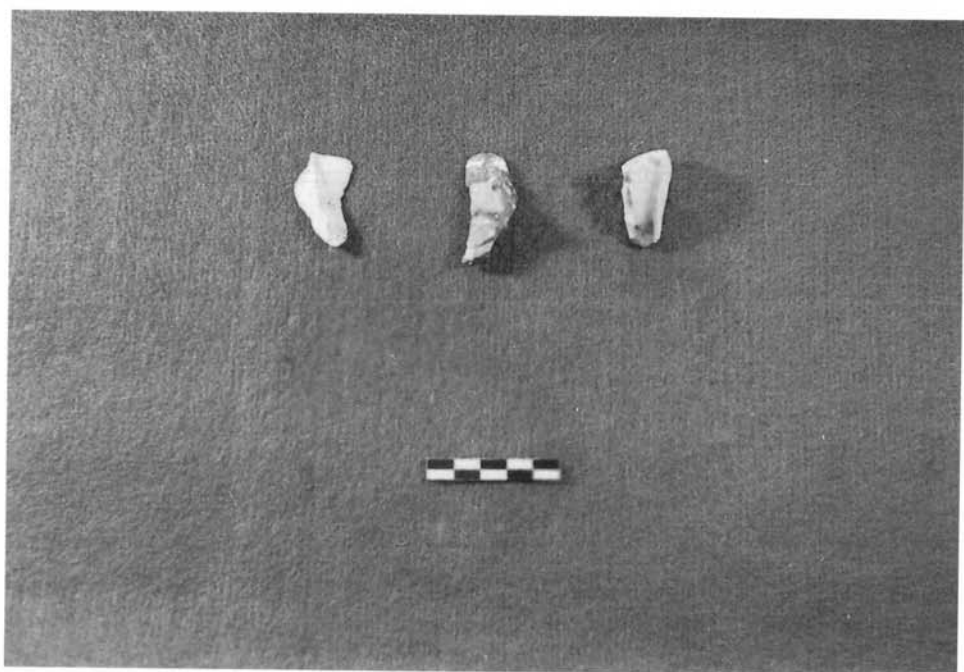
「사진 44」 B pit 출토 접합석기 분리 상태



「사진 45」 지표 수습 유물 석영제 굽개들(우측이 톱니날 굽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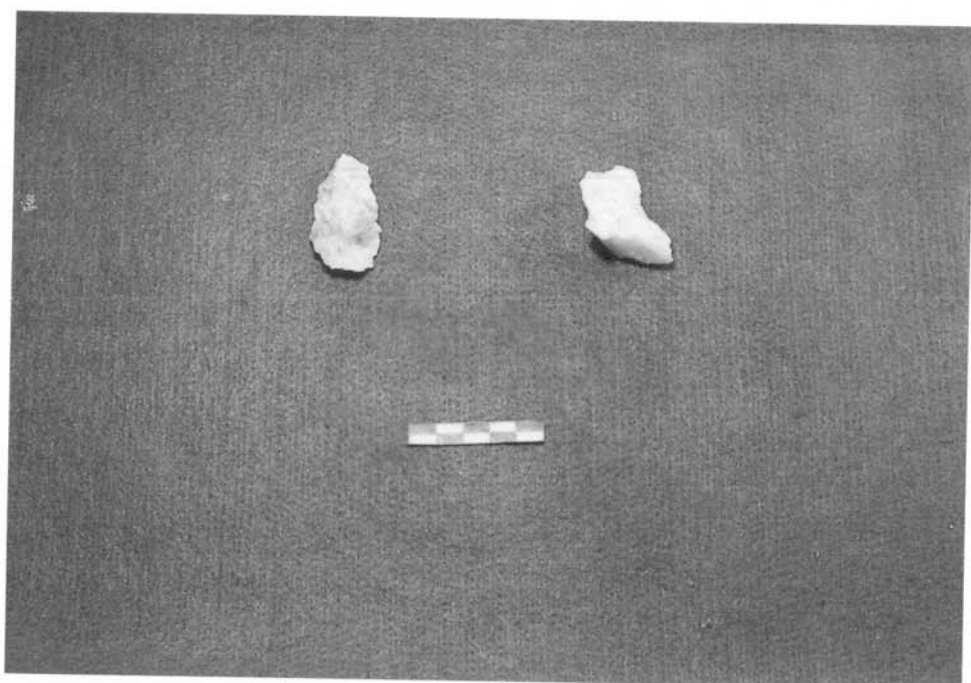
「사진 46」 지표수습 톱니날 굽개



「사진 47」 지표수습 최말기 구석기들(가운데가 반암제, 이외는 호온펠스제)



「사진 48」 지표 수습 호온펠스제 돌날의 사용흔



「사진 49」 지표수습 석영제 박편석기들



「사진 50」 지표 수습 찌개